

하나님의 말씀

성찬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6573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다.....	5
8141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7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9
5206 주의 만찬. "보라, 내가 문 앞에 있나니.".....	9
6947 심장의 문을 여는 것. 성찬식.....	10
주님의 식탁에서 손님들과 만찬.....	12
6862 주의 식탁. 초대하는 하나님.....	12
5771 주님의 식탁에 있는 손님.....	13
7450 주님의 식탁. 성찬.....	14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시고.....	16
5483 빵과 포도주, 올바른 음식과 올바른 마실 것.....	16
5492 주의 만찬. 양식과 포도주.....	17
7089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	18
3273 하늘 나라의 양식. 위험에 처했을 때 받는 강하게 해주는 도움.....	19
“받아 먹으라”.....	21
6135 받아들먹으라.....	21
7600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먹으라".....	22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라”.....	24
4079 하나님의 말씀 살과 피. 하늘나라의 양식. 하나가 되는 일.....	24
8567 살과 피. 영적인 양식.....	25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	27
8791 수난의 금요일.....	27
8349 예수의 피를 통해 죄짐을 해결.....	28
7235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30
766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31
4166 죄사함의 역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33
6755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34
6850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35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37
3728 “누가 내 살을 먹는가.”.....	37

3954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38
5017 영원한 생명. 활동. 하나님에게서 나온 힘과 사랑.....	39
6302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일.....	40
7909 성찬식의 의미.....	41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43
2122 “먹고 마시라.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43
3740 “나를 기억하며 실행하라.” 주의 성찬.....	44
7666 임명할 때 주는 말씀.....	46
영적인 교제.....	48
2085 영적 친교.....	48
4142 영적인 친교. 과정. (출생).....	49
5384 성찬.....	51
7120 성찬식과 사랑.....	51
사랑을 행하는 일은 영적인 교제의 전제 조건.....	54
3999 하나님의 말씀. 살과 피.....	54
3149 “경청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55
4474 행하는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연합.....	56
6584 예수의 약속의 성취.....	57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 (교회의 오류).....	59
4721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참된 교회의 회원.....	59
4925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 주의 만찬.....	60
4379 주의 만찬. 영적인 감각. 육체와 피.....	61
6000 육체의 부활.....	63
7246 습관이 된 관습과 말씀.....	65
8688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	66
혼에게 영적 양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과 의식적인 연결.....	68
6733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는 일.....	68
4535 혼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일. 세상적인 것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	69
7427 주님의 식탁에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일.....	70
7026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71
7940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일.....	72
8874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	74

5852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모두 내게로 오라.".....	75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77
7258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전제조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됨.....	77
3612 의식적으로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일. 영의 음성.....	78
5469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생각의 형태로.....	79
2219 진리 안에서 생각으로 가르침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조건이다.....	80
4313 자신 안에서 울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	81
하나님의 임재.....	83
8128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83
3596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이 전달됨.....	84
5056 "내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곳.".....	86
8514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한다.....	87
포도원 일.....	90
5251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격이다.....	90
8325 하나님의 올바른 섬기는 중. 임명할 때 주시는 말씀. 영의 역사.....	91
4908 주의 만찬. 살과 피.....	93
7994 영을 부어주는 일. 영적인 성찬.....	94
7561 포도원 일을 하라는 자극.....	96
6129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97
6308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름.....	98
3676 심장에 거처를 준비하라. 주의 만찬.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있다.".....	100
6609 긴급하게 주의 만찬에 초대하는 일.....	101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다.

B.D. No. 6573

1956년 6월 15일

내 사랑과 긍휼로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 간다. 이로써 너희가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너희 자신이 임재하도록 허용한다면,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는 존재를 확신시키는 내 음성을 너희가 단지 들으면서 나와 너희 사이의 연결이 너희에게 증명될 수 있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지라도 내 음성은 또한 너희에게 내 자신의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내 음성을 자원하여 듣고 내 말씀이 그들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 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내 성품과 내 의지와 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줘야만 하고 그들에게 내 자신을 계시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계시가 그들 안에 사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게 하는 일이 내가 내 말씀을 이 땅으로 전해주고 나 자신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목적이요 목표이다. 이런 음성을 듣는 일을 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내 말씀이 들릴 때 귀와 심장을 여는 모든 사람은 이미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그는 내 자신이 주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가 나에게 대한 저항을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말씀 안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경고한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만드는 결과를 알려주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기쁨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말씀이고 가장 높은 깨달음과 빛과 진리 안에 거하고 유일하게 너희에게 자신의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단지 너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만 하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 내가 한번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귀한 것을 지나친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를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과 자신을 창조한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항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나를 계시할 수 없다. 그는 아직 루시퍼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에게 나 자신을 계시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위에서부터 올려 퍼지고 자신을 여는 사람들의 심장으로 향한다. 나는 단지 내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삶 가운데 자유의지의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말씀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씀은 자원하는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고 내 말씀은 강요하지 않고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고 나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내 말씀은 내 사랑이 직접 발산 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또한 사람들에게 내려 갈 수 있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항상 또 다시 그들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내 말씀을 제공할 수 있다. 내 말씀은 가장 밝은 효력을 가진 힘이고 혼을 위한 올바른 양식이다. 그러므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하고 같은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랑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복음이 항상 또 다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로써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내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영원히 바꾸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내 말씀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므로 내 말씀은 항상 영원히 동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이를 위해 또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직접 말하는 일이 필요하고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나에게 귀환하

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내 피조물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계시해야만 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B.D. No. 8141

1962년 4월 3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영원한 말씀인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이상 내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원한 말씀과 전혀 어떠한 연결도 없었던 사람들과 내가 연결을 이루려고 한 일은 아주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이다.

이렇게 나와 멀리 떨어지게 만든 잘못이 그들 자신에게 있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와 이 큰 간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원래 초기에 내가 나로부터 생명으로 생성된 모든 피조물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말씀을 듣는 일이 그들에게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내 사랑 자신이 이 큰 간격을 극복했고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고 이제 내 피조물들과 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빛과 축복의 나라에 있는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다리를 놓기위해 그들과 연결을 이루기를 구했다.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나 한때 나로부터 자유로운 피조물로 생성되어 나온 그들을 강요 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높은 곳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그들이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에 모든 자유의 의지로 들어서야 한다. 나는 이를 단지 내 음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울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입었고 나는 인간의 겉형체 예수를 입었고 내가 이제 사람 안에서 말한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은 내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내 의지를 알려 줄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 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는 의지가 진지하면, 모든 사람 스스로에게 듣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했다. 그러나 내 영을 부어주는 일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고 사람 스스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내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은 먼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만 하고 이전에 한때 나로부터 타락했던 죄짐을 해결받아야만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인류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스스로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불쌍한 상태와 빛이 없는 상태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전적으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런 큰 간격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만 하고 나 자신이 의지를 그들에게 전해 줘야만 한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한 사람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단지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 모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다시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을 가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 된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들에게 내 뜻을 알려 주기 위해 그들 스스로 살아야 할 삶을 내가 그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사랑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4월 3일) 이 가운데 그들은 무능했고 무능하게 머물러서 어떤 성장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힘으로 역사한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단지 사랑의 힘만이 줄 수 있는 다른 기적들을 행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삶의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왜냐면 나는 그들에게 먼저 왜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위험 가운데 있는지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축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축복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 받아야만 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원래의 상태일 때는 말씀이 모든 존재에게 들렸고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근원이었다. 존재들이 이런 축복을 스스로 버렸다. 왜냐면 그들의 자유의지로 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말씀은 나로부터 직접 온 사랑의 비추임이고 존재가 이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의 아주 큰 위험이 내 사랑과 공휴이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대면하게 했다.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은 나를 깨닫고 내 말을 영접하고 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서 단지 사람을 보고 내 말을 단지 사람의 말로 평가를 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했고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항상 또 다시 설명해줄 수 있었다. 나는 내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며 나 자신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했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내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는 항상 내 끝없는 사랑과 공휴이 사람들에게 향하고 사람의 심장을 비추어 준다. 이런 심장은 내 사랑을 자원해 내 말씀을 받아드리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고 큰 은혜의 선물에 대해 나에게 감사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 자신과 긴밀한 연결에 이르게 되고 이 땅의 자신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인 나와 전적인 연합을 이룰 것이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의 만찬. "보라, 내가 문 앞에 있나니."

B.D. No. 5206

1951년 9월 6일

주님의 식탁으로 자주 나와 내가 배고프고 목마른 너희 모두를 먹일 수 있게 하라. 너희를 위해 항상 양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너희의 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 양식과 음료를 너희에게 항상 자원하여 제공할 것이다. 나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영양이 충만한 그러므로 너희의 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인 내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배부르게 하라. 나는 너희의 초대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유일하게 너희 혼을 진실로 강하게 하는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초대를 수락하고 항상 너희를 위해 준비되었고 단지 손님이 집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기다리는 내 식탁을 지나치지 말라.

내 식탁에서 먹는 사람은 다시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제공하는 내 몸과 내 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축복받기를 원하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고, 내 살과 피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내 말은 항상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영이 깨어난 모든 사람은 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피이다. 피는 몸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므로 살과 피는 몸의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혼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혼도 혼의 몸을 유지하고 살아 있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만 한다. 혼은 살과 피를 섭취해야만 하고, 혼의 생명을 보장하는 양식을 먹어야만 한다. 이 양식은 절대로 이 땅의 물질적인 양식이 될 수 없고, 혼은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고 영적인 양식은 또한 살과 피와 같이 혼에게 생명을 의미한다.

이런 영의 양식은 내 말씀이고, 말씀의 힘으로 혼이 살아 있게 한다. 그러므로 혼이 내 말씀을 살과 피처럼 느끼고, 진정한 생명처럼 느낀다. 말씀은 치유하는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고, 죽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혼을 나에게서 나온 힘을 모으는 장소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내 양식과 내 포도주로 쾌활하게 한다. 나는 그들이 내 힘과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왜냐면 내가 제공하는 것은 내 소유이고 단지 신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제공하는 것은 내 사랑의 힘이 발산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 살과 내 피이고, 내 원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나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내 초대에 응하면, 내가 또한 그들 안에 임재한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는 형체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또는 지각할 수 있게 표현하는 형체는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로, 음식과 음료로, 너희의 혼을 위한 진정한 영양분으로 너희에게 제공된다. 너희는 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수 없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나는 나를 위해 문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만찬을 나누고,

그가 나와 만찬을 나누기를 원한다." 긴밀한 영적인 연관관계가 먼저 이뤄져야만 하고, 이런 관계는 유일하게 사랑이 이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임재를 의식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부족한 너희의 혼에 생명을 주고,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어야 할 하늘의 양식인 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한다.

아멘

심장의 문을 여는 것. 성찬식.

B.D. No. 6947

1957년 10월 17일

나 구든 자신의 문을 닫고 내가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피폐해질 것이다. 왜냐면 나만이 그의 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혼을 위해 어느 곳에서든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혼을 위해 올바른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디를 향해 가든지 항상 나 자신에게 양식을 구해야만 한다. 나 자신이 너희를 먹이기 위해 들어갈 수 있게 너희 심장의 문을 열어 만한다. 너희가 나 자신에게 양식을 구할 경우는 너희가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왜냐면 너희가 어디서 나를 부르든지 나는 항상 너희 부름을 듣고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 자신과 연결이 되지 않고 너희가 이제 제공받을 수 있게 어떤 장소에 먹고 마실 것을 저장 해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단지 내 손을 통해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음료를 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의 혼은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 건강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자원하여 나에게 문을 열어 줘야만 하고 이제 나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를 먹이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의 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 심장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너희 심장의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 하지 않은 식량으로 배를 채우면, 이것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양식이 너희를 안락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 양식에서 너의 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얻을 수 없다. 혼은 죽은 상태로 머물거나 연약해진다. 혼은 굶주림과 갈증을 느낀다. 혼의 이런 곤경 가운데 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혼의 운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내려고 열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단지 이성만으로 학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 함으로 혼이 아무런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혼에게 양식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르고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에서 단지 자기의 이성을 위해만 어느 정도 섭취한다.

그들 자신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혼이 피폐해진다. 만약에 그들의 이웃들도 이전에 나와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심장의 문을 열어 나에게 성찬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들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내 제자들에게 말했던 "받아먹으라 받아 마셔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를 행하라"의 영적인 의미는 항상 나와의 직접 연결을 의미하고 그들의 혼에 양식이 되는 양식과 음료를 받고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이전에 긴밀하게 나를 묵상하고 나 자신을 통해 혼에 양식을 주는 일이 없이 단지 빵과 포도주를 주는 일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읽기만 하는 일과 같다. 나 자신을 부르는 소리 만으로는 이것도 빈 소리에 불과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불러야만 한다.

심장에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오기를 구해야 한다. 나는 진실로 각각의 혼이 필요한 양식과 음료를 나눠줄 것이다. 그러므로 문을 여는 일은 자유의지로 나와 연합되기 원하면서 은혜를 주기를 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다. 이는 혼의 연약함과 갈급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소생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나는 진실로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 심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것이다. 혼은 건강해질 것이고 혼은 성장할 것이고. 혼은 이제 영원히 다시는 잃지 않게 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의 식탁. 초대하는 하나님.

B.D. No. 6862

1957년 7월 1일

주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직접 주는 주님의 식탁으로 너희 자신을 인도하라. 너희 모두는 그의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다. 초대자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모두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는 혼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혼에게 힘과 빛을 주고 단지 자신이 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신의 영원의 말씀인 자신의 삶과 자신의 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를 원한다. 너희 모두의 혼은 아직 약하고 너희 모두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위해 너희를 강하게 해주는 양분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아직 영의 눈이 멀었고 빛을 받아야만 하고 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올바른 길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또한 가야 한다.

너희 모두는 궁핍하고 음식과 음료가 너희에게 공급돼야만 한다. 신적인 초대자는 이를 깨닫고 너희의 혼의 위험을 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이 강하게 해주는 양식과 쾌활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음료를 너희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두를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그들이 그의 사랑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을 통해 쾌활하게 한다. 그는 자신과 성찬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준다. 즉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준다. 그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말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나는 나에게 문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성찬을 나누고 그가 나와 성찬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었다. 왜냐면 그 자신이 하늘에서 온 만나이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이 만나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만나를 너희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와 직접 교제해야만 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을 그의 손에서 받아야만 한다. 하늘의 양식인 그의 말씀이 종이냐 또는 중보자를 통해 너희에게 전해질지라도, 그가 이제 너희와 성찬을 나누기 위해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그에게 문을 열었어야만 한다. 너희는 그의 식탁에 참석해야 하고 너희는 그의 손님이 돼야 하고 그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나 또는 너희가 초대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식을 너희에게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의 성찬으로 초대하는 부름이 모든 곳으로 울려 퍼지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차별이 없이 궁핍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이다. 이 땅의 삶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은 궁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가 받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어느 누구도 굶주리고 피폐해질 필요가 없다. 초대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일꾼을 세상으로 보내고 이런 일꾼들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초대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 주고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 준다. 그들은 귀한 양식과 쾌활하게 하는 음료를 베풀기 원하는 한 분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심장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모든 사람이 귀한 양식과 쾌활하게 하는 음료를 제한이 없게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의 손님이 되려는 의지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인이 그를 특별하게 영접하고 그가 자신의 혼을 위해 필요한 것을 그에게 준다. 혼이 한번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 혼은 더 이상 다른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고 혼은 항상 또 다시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혼은 계속하여 하늘의 양식을 주님의 손에서 받게 될 것이고 혼은 영원한 말씀 자체이고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식탁에 있는 손님.

B.D. No. 5771

1953년 9월 17일

내 식탁에 참여하라. 그러면 너희는 혼을 위한 양분으로 음식과 음료를 받게 될 것이다. 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너희의 혼이 공급을 받고, 너희가 먼저 혼의 구원을 추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전적으로 모두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혼의 거처로 섬겨야 하는 몸도 필요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 혼에게 얼마나 오랜 동안 혼의 곁형체가 필요한지를 알고, 혼에 필요한 정도로 성숙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기간 동안 몸이 보존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면, 단지 너희의 혼을 위해 원하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하게 받을 것이고, 너희의 혼이 굶주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너희가 먼저 내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육체도 또한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준비가 된 손님이 된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너희 혼의 양분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너희가 너희 혼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힘을 주는 내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더 자주 내 말씀을 구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항상 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손님이 되도록 너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양식과 포도주로, 내 살과 피로 너희를 쾌활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혼이 자신의 빛과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너희를 쾌활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내 식탁에 참여하고, 나에게 사랑의 선물을 요구하는 어느 누구도 진실로 굶주리고 피폐해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 손님에게 친절한 내 집으로 사람들이 오게 한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기 원하고, 내 손님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부른다. 그러나 내 집은 넓은 길을 벗어난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게 도달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넓은 길을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내 식탁에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맛있고 쾌활하게 하는 것을 넓은 길에서는 절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자주 내 손님이 될수록, 그들은 맛있고 쾌활하게 하는 것을 항상 점점 더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 왜냐면 비록 내가 그들에게 일꾼을 보낼지라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만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부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빈손이 될 것이다. 왜냐면 세상은 내 사

량이 그들에게 제공하기 원하는 것을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씀은 힘이요 빛이요 생명이고, 그들을 축복되게 한다.

아멘

주님의 식탁. 성찬.

B.D. No. 7450

1959년 11월 8일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의 혼을 위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굶주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혼은 배고프거나 목마를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혼 자신이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쉬지 않고 분배하기 때문이다. 내 식탁은 항상 차려져 있다.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에게 베푸는 너희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성찬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과 음료를 제공하면, 너희 혼은 건강한 양식을 받을 것이다. 이 양식은 아직 병들고 연약한 그러므로 진실로 혼을 강하게 해주는 양식이 필요한 너희 혼이 건강해지게 도울 것이고 너희 혼이 원래 초기에 소유했던 능력을 다시 갖기 위해 필요하다.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이 제공돼야만 한다.

이 양식은 나로부터 무한한 가운데 발산되는 내 식탁에서 자신을 배부르게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자신을 여는 모든 혼에게 감동을 주는 내 순수한 말이다.

이런 양식을 한번 섭취한 사람은 이 양식이 주는 효과를 느끼고 그는 자신에게 사랑으로 제공하는 나 자신에게서 양식과 음료를 받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초대자로서 항상 또 다시 너희를 내 식탁으로 초대해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을 너희가 내 손에서 받게 한다. 너희의 혼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빛과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성품을 바꾸고 다시 너희의 원래 성품을 덧입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안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근원적인 성품과 같아져야만 한다. 살과 피는 내 말씀이다. 살과 피는 영원으로부터 말씀인 나 자신이다.

나와 함께 성찬을 나눈다는 것이 내 식탁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이제 아느냐? 내가 건강한 양식을 가지고 너희를 쾌활하게 해서 너희 혼의 입자가 강하게 되어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영인 내 영을 자신 안에 가진 모든 온전함을 발산하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기 원함을 너희는 이제 아느냐?

너희 혼은 다시 이런 영을 너희 안으로 영접해야 한다. 혼은 다시 사랑이 되어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 너희는 내 양식으로 통해 너희에게 제공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 사랑의 성품이 발산한 것이 모든 능력으로 내가 창조한 존재들에게 다시 비춰져야 한다. 혼들은 내 능력으로 축복된 말씀인 하늘의 양식을 받는 가운데 이런 능력을 영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초대자인 내가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진실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 힘의 원천인 나로부터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내 말을 너희 혼을 위한 양식과 음료를 혼을 건강하게 하고 능력을 주는 약품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모두는 내 식탁으로 다가와 원천에 자리를 잡고 너희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내 손으로부터 받으라.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단지 모든 긴밀함으로 나에게 양식과 음료를 구하고 감사하며 너희가 받는 것을 영접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흘러 들어가는 능력을 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양식을 필요함을 믿으라. 왜냐면 너희는 연약하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병들어 있고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열어준 생명의 원천을 지나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듣고서 생각해보라. 내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다가오라. 너희는 곧 다른 양식이나 다른 음료를 더 이상 먹고 마시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내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는 성찬으로 초대하는 내 초대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초대자에 의해 배부르기 위해 찾아 온 내 손님인 너희에게 모든 사랑으로 초대자가 제공하는 성찬을 제공할 것이다.

아멘

빵과 포도주, 올바른 음식과 올바른 마실 것.

B.D. No. 5483

1952년 9월 9일

너희 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병든 혼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의 마지막 싸움에서 견딜 수 있도록 너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늘에 아버지가 너희에게 직접 주는 양식은 너희를 끝없이 행복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너희 귀를 울리고, 심장에 감동을 주고, 순수하고 진실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고, 혼이 아버지께 향한 파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은 멀리 있는 사람과 절망한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희망 속에 평안을 찾게 하고, 병든 사람의 혼이 치료 받게 한다.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에서 그의 출처를 증명해주는 능력이 나온다.

아버지는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믿음으로 이를 영접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 양식을 너희에게 나눠 주고, 너희에게 자신의 말의 능력인 포도주를 나눠 준다. 너희가 위로부터 온 그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 심장을 열고 영접하고 너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면, 너희는 진실로 그가 손님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그의 손님이 된다. 하늘에서 온 양식은 고귀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양식은 가치가 낮은 것들과 섞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상태로 순수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면 하늘의 양식의 효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말씀은 변화를 가져오고, 말씀의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이제 역사하는 곳에서 이 능력과 접촉하는 것에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항상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장에 감동을 주면, 사람의 혼에 어떤 결과가 꼭 나타난다. 만약에 혼이 질병가운데 있으면 건강해지고, 그가 건강하다면,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영접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영접할 능력을 받는다. 또는 혼이 병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믿게 된다. 이런 일은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과 같고, 만약에 그가 믿는 사람이고 병고침이 필요없는 사람이면, 하늘의 양식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어, 그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이뤄야만 한다. 이는 다시 능력의 역사로 볼 수 있다.

이런 효력들은 단지 순수한 하늘의 양식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 땅에 전해진 생명의 양식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자신의 하늘의 양식을 빵과 포도주로 비유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단지 강력한 음식과 강력한 음료수가 혼을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혼이 영접하는 다른 모든 것은 하늘이 양식이 도달하게 하는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실제 걸음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양식이지만, 건설해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고, 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늦추거나 또는 병든 상태를 감추는 것도 있다.

혼에게 실제 또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올바른 양식이나, 올바른 음료가 아니고, 혼 자신도 배가 부르거나 능력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혼이 순수하고 변경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받지 못하는 동안에는 혼은 굳건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한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늘의 양식으로 깨닫게 되면, 내 종을 통해 너희에게 전달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제공하는 병든 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영원히 살게 하는 단지 이런 양식을 너희가 이제 간절히 원하게 된다.

아멘

주의 만찬. 양식과 포도주.

B.D. No. 5492

1952년 9월 21일

□ 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식탁에 모여 내 양식과 내 포도주를 **□** 받고, 내가 내 종들을 통해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는 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내 말씀을 듣기 원하는 너희에게 내가 직접 해준 말이다. 너희는 너희 혼이 강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 혼은 생명의 근원에서 자신을 쾌활하게 할 것이다. 나 자신이 혼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인 양식과 포도주를 혼에게 제공한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는 만나이고, 너희에게 올바른 음식이고, 이 땅의 어떤 것도 이런 하늘의 양식을 대신할 수 없고, 이전에 병들고 연약했던 혼을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줄 것이다. 모든 병든 사람들의 의사이자 구세주로서 나 자신이 진실로 너희에게 최선의 치료의 수단을 제공한다. 왜냐면 혼에게 무엇이 부족한 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또한 유일하게 무엇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직접 발산해준 내 말씀은 빛과 힘이고, 너희 사람들이 너희가 한때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되는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의 과제를 완수하기 원하면, 너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너희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일어났을지라도 너희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는 모든 것을 잃었고, 너희는 연약하고, 비참하고, 영이 어둡고, 힘이 없게 되었다. 너희는 깨달음이 전혀 없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한때 너희가 받은 사명대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소멸될 수 없고, 존재하지 않게 분해될 수 없고, 영적인 존재로 머문다. 그러나 단지 너희가 내 의지대로 전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온전하지 못한 정도에서 머문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될 수 있도록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미 도달한 성숙한 정도에 더해서 너희를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힘과 빛을 전하기를 원하고, 양식과 포도주처럼 깊은 잠을 자고 있고 나와 혼의 기쁨을 위해 다시 깨어나야 할 너희의 혼을 생명으로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너희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 양식과 힘의 공급이 없이는 혼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그러나 혼은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신을 쾌활하게 할 수 있고, 혼에게 진실로 쾌활하게 하는 포도주가 제공된다. 이런 포도주가 혼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고, 혼은 질병과 연약함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너희 사람들이 항상 내가 내 사랑의 선물로 중단 없이 차리는 내 식탁에 단지 참여하면, 혼은 새로운 생명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내 종들이 하늘에서 온 떡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들어가게 하고, 내 사랑의 선물을 영접하기 위해 너희의 귀와 심장을 연다면, 너희는 나와 만찬을 나누고 내가 너희와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혼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모든 연약함이 너희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내면이 빛이 되고 밝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너희가 나 자신에게서 양식을 받아 먹고 마시고, 위로부터 너희에게 제공되는 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또한 내 말씀에 순종하고, 양식과 포도주의 힘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고,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단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내가 만찬을 함께 하는 내 손님들이고, 너희는 양식과 포도주를 받을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 더 이상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

B.D. No. 7089

1958년 4월 11일

너희가 세상적으로 배부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육체에게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면, 너희에게 충분한 것이 아니고 너희 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을 더욱 갈망해야 한다. 혼의 양식이 위험한 경우에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육체의 양식은 절대로 혼이 높은 곳으로 성장하게 돕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 자신을 내 말을 너희 안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육체는 너희가 육체를 항상 세상적인 음식으로 배부르게 할지라도 사라질 것이다. 육체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이 시간에 지나면, 세상의 어떤 음식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혼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더 많이 돌보아야 한다. 너희는 혼에게 쉬지 않고 하늘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너희는 혼이 단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양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에게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음료를 구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추구하는 것은 단지 순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만약에 내 뜻이 다르게 정했으면, 자신의 육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혼을 굶주리게 하면, 혼이 육체 때문에 양식과 음료가 없게 버려 두면, 어떤 사람도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가 존재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동시에 소멸될 수 없는 혼을 돌보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너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가 보낸 일꾼을 통해 대화 요청을 받고 이제 이미 너희 혼

의 구원을 위해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나에게 주기 위해 너희가 단지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자신을 나와 연결시키게 요청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식사 초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든지 내 식탁에 임하여 나로부터 너희의 혼을 위한 양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 말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생명수이다. 내 말은 살과 피이다.

내 말씀이 유일하게 너희 혼에게 혼이 영원히 다시 잃지 않게 될 생명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올바른 양식이다. 너희가 너희 혼의 필요를 아주 적게 충족시키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너희가 혼을 잊어버리게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희에게 부족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직 전적으로 대적자에게 빠지지 않은 동안에는 세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난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나에게 향하게 하고 고난을 해결해주시기를 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시에 너희의 혼이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왜냐면 모든 나와 연결은 혼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양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를 통해 너희가 나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 와야만 함을 내가 너희 혼에게 생명을 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함을 볼 수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진실로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는 단지 조용한 가운데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이끈다. 너희는 내가 내 선물을 너희에게 제공하게 하고 너희 혼에게 양식과 음료를 제공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생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연결시키면, 너희가 나 자신이 들어갈 수 있게 너희 심장을 나에게 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양식을 제공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했고 내가 내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 나라의 양식. 위험에 처했을 때 받는 강하게 해주는 도움.

B.D. No. 3273

1944년 9월 28일

다가 올 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 너희가 믿음을 잃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적인 사건으로 영적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위로와 힘이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환난의 시기와 너희가 요구받는 일에 대해 알고, 또한 너희가 큰 위험에 처할 때, 너희의 의지가 연약하다는 것도 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생각하고, 유일하게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너희가 양식을 받는다면, 너희를 강화시켜 주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희에게 육체적, 영적 힘을 가져다줄 양식을 제공한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항상 구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양식을 먹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해질까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의 목적을 성취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너희에게 진실로 새 힘이 되고, 너희를 쾌활하게 해야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깊게 해야만 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희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고, 파괴될 수 없고 절대로 힘을 잃지 않는 하늘의 만나이고, 하나님의 삶과 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또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야만 하고, 세상의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것을 능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선물도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은사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가 혼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혼이 연약함을 벗어나게 되면, 모든 이 땅의 영향력이나 모든 세상의 위험이 의미가 없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고, 이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혼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혼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돌본다. 그러나 다가올 때에 특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때가 많은 도움을 요구하고, 이 도움은 단지 하나님의 힘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양식을 받는 사람의 두려움과 연약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받는 모든 과제를 성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자신의 혼을 위해 단지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힘이 들고, 너희의 혼이 불안해 할 때, 이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의지가 된다. 그러면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 도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격려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제공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효력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에 대해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끊임없이 너희를 돌보는 그의 보살핌에 대해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 전에 이 때를 준비했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했고, 이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이 때를 맞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그의 생명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의 혼은 살아 있고,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 땅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끝을 정한다.

아멘

“받아 먹으라”

받아먹으라.

B.D. No. 6135

1954년 12월 14일

받아먹으라. 내가 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떡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떡은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내 말씀의 상징이다. "받아 마셔라." 내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면서 이 말을 말했다.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고 사람들이 강하게 되기 위해 마셔야 하는 내 말씀의 힘을 상징한다. 빵과 포도주는 살과 피의 상징이었다. 나 자신이 육신이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할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고 내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어둠 속에 가둔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축복되기 원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들려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는 내 말씀을 굶주려하며 영접해야만 하고 너희는 말씀을 섭취하고 너희 혼에게 양식을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말씀 안에 생명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살과 피는 생명에 속해 있고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죽었다. 생명의 떡은 내 말씀이고 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성찬에 대해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있는냐? 그리고 너희가 내 말씀을 받고 굶주려하는 가운데 너희 안으로 섭취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너희가 듣는 동안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제자들을 위해 떡을 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줄 때 나는 오직 내 말씀이 나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이루고 이런 연결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내가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나아가 그들이 내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 앞에 놓인 일인 내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일을 알았다.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를 위해 희생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영원한 말씀 자신이 너희 사람들에게 말했다: "받아먹으라. 받아 마시라." 너희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에 의해 하늘의 양식을 제공받기 위해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나와 긴밀한 관계를 다시 이룰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으로 나 자신을 영접하고 너희는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피가 너희의 생명을 보장하고 내가 손에 가득하게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희 혼은 절대로 굶주리거나 목마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혼을 배부르게 하고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혼에게 성찬을 제공할 것이고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고 그들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먹으라".

B.D. No. 7600

1960년 5월 15일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 말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에게 힘과 은혜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제공을 잘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너희에게 계시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너희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아버지는 진실로 자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돌본다. 그래서 자녀들이 단지 아버지가 말하게 하면 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함을 나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증명한다. 사랑하려는 아버지의 심장은 항상 선물할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내 음성이 들리면, 너희는 어떤 것도 부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내 자녀임을 알고 내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염려가 내 자녀에게 해당됨을 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얼마나 행복해하며 찬양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미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에 들어선,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될 내 자녀에 속한다는 증거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떠한 불안에도 더 이상 빠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말하게 만든 의지가 이 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이 땅의 길을 가게 해주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먹는 것은 "내 살"이고 너희가 마시는 것은 "내 피"이기 때문이다. 너희 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빵과 포도주이다.

너희는 나 자신을 너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면 나는 육신이 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중 내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의 깊이를 한번 생각하라.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게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임재는 너희를 넘치게 행복하게 해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직접 해주는 말을 듣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일꾼을 통해 내가 직접 이 땅에 보낸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내 자녀임을 인증하는 내 말을 들을 만한 정도가 되면, 너희는 진실로 너희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내 순수한 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내 말을 그들의 심장으로 영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거나 또는 읽을 수 있음이 너희가 나에게 속한다는 증거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이런 확신 가운데 행복해야 하고 항상 단지 내 말을 듣길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

너희는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는 배고픈 심장으로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양식을 맛있게 먹어야 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로써 너희 심장 안에 나를 전적으로 영접해야 한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빵과 포도주를 섭취하여 너희의 이 땅의 육체가 섭취하는 어떤 양식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를 강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나는 혼에게 내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양식은 혼을 성장하게 하고 혼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돕는다. 너희는 이제 내가 내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이유를 아느냐? "받아먹고 받아 마시라."

너희는 이제 내가 내 제자들에게 말함을 아느냐? 그들이 내 말을 영접하고 이 말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함을 아느냐? "나를 기념해 성찬식을 행하라." 너희는 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너희는 내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느냐?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들의 혼을 위한 올바른 양식으로써 내 말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고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임재해 있다는 것을 안다. 내 말은 모든 영원에 까지 남을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이런 내 임재를 허용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내 음성을 통해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혼은 성숙할 것이다. 그들의 혼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들의 혼은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이 그들에게 쉬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에 이로써 혼이 내 사랑의 비추임에 내 말에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와 연합되길 바라고 나와 연합될 것이다.

아멘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과 피. 하늘나라의 양식. 하나가 되는 일.

B.D. No. 4079

1947년 7월 8일

영적 양식을 향한 갈망은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원동력을 가진 확실한 증거이다. 이런 갈망은 내가 나의 선물을 분배하고 하늘에서 온 양식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내 식탁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성찬을 제공하고, 그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맛보게 하면서 항상 성취가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이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을 쾌활하게 하게 한다. 그들은 분명하게 목표에, 혼의 성장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성장이 그들에게 이 땅과 영의 나라에서 나의 임재를 보장할 것이다. 왜냐면 나의 만찬을 드는 사람은 이미 나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는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기 때문이다. 즉 그가 나를 향한 갈망으로 내 사랑이 그에게 주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가 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면 자기 안이 사랑이 된 사람이 단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람들도 아직 나의 말씀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식탁에서 먹는 성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실제 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찬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나의 깨어난 종들을 통해 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은 이를 믿지 않고, 그들이 이미 잘못되게 영접한 것을 굳게 붙잡는다.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나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굶주린 심장으로 그의 심장 안으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성찬을 받고, 그는 나에게 의해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즉 그는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된 나를 영접한다. 그가 나를 그의 심장으로 나 자신을 영접할 때, 내 피는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나의 힘이다. 그러나 그는 나 자신을 갈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단지 공허한 소리를 듣고,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갈망하고 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또한 사랑 안에서 산다. 왜냐면 사랑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갈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심장의 갈망을 말하고, 비록 같은 말을 하지만 심장에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말로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심장으로 원할지, 언제 원하게 되는지 진지하게 점검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그래야만 비로소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 그들은 가장 큰 신비를 경험하고, 사랑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된다. 나

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그들이 나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를 끌어드린다.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섬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나의 뜻을 성취할 것이고, 또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을 줄 것이고, 영적 양식을 그에게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고, 그는 절대로 내 식탁에서 빈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나와 연합이 될 것이고, 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와 교제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그의 심장이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를 갈망한다면, 내가 그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아멘

살과 피. 영적인 양식.

B.D. No. 8567

1963년 7월 23일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양식은 진실로 너희의 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모든 세상적인 그리고 영적인 시험 가운데 너희에게 능력을 주기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대적자의 세상인 물질세계와 그의 묶임을 극복하는 극복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알맞은 것이다. 나는 혼들이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 그들이 완성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올바른 양식으로 인도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약속했다. 이는 나 자신이 육신이 된 말씀이라는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나 자신을 양식으로 준다는 의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이 그들의 심장 안에 역사하고 내 말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거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약속했다. 내 능력을 가진 내 말은 자신이 나로부터 양식을 받아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다.

너희가 내 말을 영접할 수 있으면 이는 내 사랑의 빛이 너희에게 다시 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너희 안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 사랑의 힘은 다시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요 목적인 혼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미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능력이 없으면,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하면서 너희를 돕지 않으면 이런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은 너희에게 절대로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초기에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너희 자신이 한때 자유의지로 능력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땅의 너희의 삶의 목적인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 이 능력을 다시 나에게서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 말과 내 살과 내 피는 너희에게 이런 능력이 제공되는 것을 보장해주고 진실로 너희 혼이 남김 없이 건강하게 되게 도와줄 것이다.

너희 혼은 나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런 능력이 없는 너희는 자신을 나와 연결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를 유일하게 나와 연결되게 해주는 사랑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끌어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대화의 요청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능력을 가진 내 말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내 말이 그에게 내 의지를 알려주

기 때문에 내 말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의 혼이 확실하게 성장할 것이고 그의 이 땅의 삶의 목적대로 그들을 내 자녀가 되게 하고 나와 긴밀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원초부터 그에게 정해진 대로 내 자녀로서 모든 자유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 혼을 위해 올바른 양식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식은 모든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더 이상 너희의 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순수한 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없게 인간적인 의지로 변색이 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나 자신이 너희에게 파주는 생명수가 흐르는 샘에서만 마셔야 함을 너희는 알 것이다.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혼의 양식을 섭취하고 전달해 주거나 또는 내 식탁에 손님을 불러서 나 자신이 그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게 나 자신이 그들에게 진실로 그들이 축복되게 되게 도와주는 그들에게 빛을 주고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유롭게 되어 할 부담을 주는 것에 저항하고 극복할 능력을 주는 양식과 마실 것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을 너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공식적으로 내 말이 제공되는 곳에서 내 말을 영접할 수 있고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서 진지하게 내 말을 받기를 구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음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진실로 받을 것이다. 너희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아서 단지 순수한 진리만을 받게 되고 내 대적자의 역사를 통해 내 영이 역사하게 허용되지 않은 곳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신이 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실제로 흘러 들어 갈 수 있는 오류에 감동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라도 청취자의 갈망이 그의 혼에게 어떠한 양식이 제공될지를 결정적 정한다. 그는 단지 항상 나와 긴밀한 연결을 만들려고 해야 하고 나에게 내 말을 전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그는 내 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땅에 직접 전하는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너희는 말을 하게 허용하라 귀한 내용으로부터 힘을 얻으라.

너희는 이를 통해 건강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함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이는 내 능력으로 축복된 내 말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너희 혼에게 양식으로 제공되는 너희가 내 손에서 감사하며 받아야 할 진리 안에 있는 내 삶과 내 피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 혼이 건강 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마지막 완성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멘

수난의 금요일

B.D. No. 8791

1964년 3월 27일

너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과정과 십자가 상의 고통을 측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힘이 인류와 아버지와의 화친을 주는 이런 최고로 어려운 희생을 치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너희가 내 고통과 아픔을 상상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연약한 비교로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너무 커서 진실로 내 십자가의 희생은 유일한 역사이고 유일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시간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람도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지 고통의 일부분만으로도 사람들을 죽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인류의 죄에 대한 올바른 속죄를 드리기 위해 고통을 당하기를 원했다.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이런 속죄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는 그의 잃은 자녀들을 다시 돌려 드리기 위해 속죄의 희생을 드리기를 원했다. 나는 자유의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내 타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길을 갔다.

나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운명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두 배로 고통을 당했다. 왜냐하면 항상 내 눈앞에 십자가의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십자가로 인도하는 고난의 길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로 이 사명을 완성했다. 나는 대적자로부터 나에게 의해 구속을 받으려는 준비되어 있는 모든 그의 혼들을 구매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들이 연약하게 된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을 얻어 내었다. 이 도움으로 그들은 한때 그들이 깊고도 깊은 곳으로 추락했던 높은 곳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 혼자서는 절대로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는 내 타락한 형제들에게 긍휼을 가졌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 축복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였는지를 알았다. 나는 만약에 한 사람이 그들의 한때 아버지로부터 떠남으로 자신에게 짊어진 이 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전적인 의식 가운데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혼적인 고통의 결과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가서 긍휼의 사역을 완성하는 이 역사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고 마지막 사명을 수행해야 할 당시에 내가 체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생각은 점점 더 인간 적이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하기 위해 한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사하기 위해 한 사람의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었던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속사역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뒤로 물러서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내 하느님, 왜 당신은 나를 떠나셨나이까?"

내 안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은 고난을 줄이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내 고통의 정도는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타락한 원래의 영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생각할 때에 충분하게 클 수가 없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써 이 사역을 끝까지 마치길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뜻 아래 나를 복종시켰다.

이는 처음부터 내 의지였다. 단지 죽음을 앞두고 짧은 기간 동안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나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부르짖어 쓸 때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복종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람도 다 이룬 적이 없고 다 이를 수 없는 어려운 제사를 드렸다. 왜냐면 이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얻었다. 왜냐면 이 사랑이 죽음의 시간까지 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다음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비록 내가 희생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랑의 힘을 사용하지 안 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연결이 되었고 연결되어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너희는 이런 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빛의 나라에 가게 되면, 비로소 너희는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내 형제들을 향한 크고 넘치는 내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자유의지 가운데 나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그리고 그가 내가 내 피를 흘려서 구속한 내가 내 죽음을 통해 속죄한 내 피를 통해 그들을 아버지와 격리시킨 죄의 용서를 받은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면, 다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 죄짐을 해결.

B.D. No. 8349

1962년 12월 6일

너희 모든 사람은 내가 창조한 영들이 한때 타락했던 아주 큰 죄를 나에게 속죄하기 위해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완성한 구속사역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임한 나와 내 사랑에 관해 전하게 했다.

왜냐면 사랑이 이런 구속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항상 또 다시 나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먼저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설명해 줘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내 말씀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 예수가 드린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알려주라는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의로운 보상을 하기 위해 아주 큰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런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크기를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해 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 안에 영원한 사랑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함을 너희가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이 지식이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자유의지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의 죄를 그에게 드리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자신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할 것이다.

나 자신의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문제와 십자가에서 내가 희생의 죽음을 당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한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위에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존재를 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선택한 내 일꾼을 통해 내가 항상 단지 노력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아야만 한다. 그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다. 왜냐면 그는 이 죽음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의지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갔고 이 길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너희는 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이런 구속사역을 영접하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 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 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고 의식적으로 그는 마지막 길을 갈다.

왜냐면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가야만 한다. 너희에게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구속이 주어질 수 없다. 한 사람이 이런 가장 힘든 희생 제사를 드렸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으로 채우고 있었지만 인간 예수는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인간으로써 고통을 당했고 단지 인간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의 구역 사역과 은혜의 보물을 활용하지 않는 동안에 그들의 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 대적자로부터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피로 구매했다. 그러나 구속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적자는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왜냐면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큰 제사가 드렸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이에 관한 지식을 보내 주면 너희는 이를 전파해 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준 이 땅에서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의 역사를 완성했던 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영원으로부터 너희는 그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든 너희들 스스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너희의 죄로부터 구속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길은 만약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 길로 너희를 따라올 수 없고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너희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일은 사랑을 통해 속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B.D. No. 7235

1958년 12월 21일

신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짐을 드리기를 위해 그의 십자가 아래로 도피한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접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붙잡아 자신에게 끌어올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그리스도가 그의 죄짐을 넘겨받고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함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곁형체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지막 의지의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는 자유한 영적인 존재로 그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물질의 곁형체를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부터 도피하려는 그의 의지를 통해 모든 영적인 사슬이 끊어진다.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길을 택한 것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왜냐면 그는 이전에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죽음의 상태에서 어두운 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산다. 그는 자유한 가운데 일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밝은 영을 가지고 있어 그가 자신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든지 또는 저세상에서든지 올바르게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단지 자유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은 동시에 한때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서 자신의 피를 흘린 후에 그러므로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는 공의를 만족시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인간 예수 안에서 한때 자신을 떠난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그는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들은 단지 이런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세주인 그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면, 자유로운 존재로서 영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죄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사람들에게 쉽게 된 것은 확실하다.

왜냐면 사람에게 단지 예수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도움을 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그가 단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약속대로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단지 자유와 공의 가운데 가능하다. 이는 큰 죄짐을 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될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신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B.D. No. 7660

1960년 7월 30일

너희는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와 고통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이 빛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너희 형편이 축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의 성장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속하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한때 너희를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귀환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짐으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그러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너희에게 닫힌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죄짐에 대해 용서받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 예수에 관한 설명을 구하라.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그를 믿을 수 있기 위해 이로써 스스로 너희의 죄짐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에게 용

서를 구하게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기를 나 자신에게 구하라. 너희는 모든 죄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 가는 일이 보장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 후에 전적으로 서로 다른 빛의 정도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는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에 너희 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너희가 어떻게 내 뜻을 성취시켰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었는지에 달려 있다. 사랑의 정도만이 너희 혼의 성장을 정한다. 너희를 대신해 사랑을 행할 수 없다.

사랑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너희가 원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 너희에게 정해진 바대로 내 형상이 되기 위해 이 법칙대로 너희는 살아야만 한다. 사랑이 된다는 것은 너희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버리고 모든 저속한 욕망과 싸우고 너희 성품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고 평화를 구하고 긍휼이 있게 공의롭게 인내심이 있게 만들고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을 버리고 항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는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허물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혼은 금강석처럼 선명하게 되고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축복을 의미하는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혼은 죽음을 죄를 부족함을 더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혼은 순수하고 순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까이에 있기에 합당할 것이다.

혼은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그들의 구세주인 내가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한때 그들이 소원한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한때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이 땅에서 이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전에 너희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구해야 한다.

왜냐면 죄짐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고 죄짐을 가지고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다면, 너희를 생명으로 생성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기를 그에게 구하라.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무지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진리를 그가 영접할 수 있게 전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평화와 축복의 나라의 영접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나서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 나를 깨닫는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는다.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나 자신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한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희를 다시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바꾸는 일이 너희의 뜻이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성장하게 너희를 돕는다.

아멘

죄사함의 역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B.D. No. 4166

1947년 11월 14일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영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단지 형식으로 여길 수 있다.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가 또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짐을 벗게 한다. 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를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죄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무리에 속하려는 의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회개와 즉 죄를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겼다는 깨달음은 죄사함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계속되는 전제 조건이다. 사람은 실제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입으로 회개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로써 그가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 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게서 죄짐을 벗겨 줄 수 없다. (1947년 11월 13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짐이 그를 짓눌러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문다.

그러나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1947년 11월 14일)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가 겸손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공개적인 고백과 그가 죄를 용서받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대로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혼이 성장해서 그들이 꿰뚫어 보게 되었고, 귀가 밝아지게 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예수는 죄의 결과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 말했고, 제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한 죄인들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그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구하게 만든 죄에 대해 말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후에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변형시킨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죄사함이 달려 있다고 믿고, 죄의 고백이 자주 형식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깊은 내면의 후회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과 죄를 혐오하는 일과 진지하게 개선을 향한 갈망하는 일이 단지 사람의 심장에 연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죄의 용서는 단지 유일하게 이런 요소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면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계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단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추가한 계명이다. 그러나

이 계명은 아주 강한 관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모순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내적 헌신과 전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계명대로 사는 일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외적인 요소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적게 관심을 갖고, 단지 인간이 추가한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혼에 대한 작업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한다.

깊은 회개의 결과인 죄를 혐오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 사람들의 영적인 퇴보를 증명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지 않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든다면, 사람이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자신을 양육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되게 죄의 용서를 묘사하는 일이 또한 자원하는 사람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진정한 긴밀함이 가치가 있고, 모든 곁형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아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B.D. No. 6755

1957년 2월 5일

너희는 너희의 주님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길을 가야만 하고 절대로 너희의 생각에서 그를 제외시키지 말아야 하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위해 증명해준 그의 무한한 사랑을 항상 단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록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확실하게 위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 곁에서 함께 걷고 그의 임재가 모든 잘못 된 발걸음과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모든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그의 지시에 순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을 듣거나 또는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죄와 죽음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에게 너희가 긴밀하게 속하고 너희의 시선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가장 끔찍한 고통과 죽음으로 이 땅의 그의 신적인 사랑의 삶을 마친 그에게 향하면, 너희 자신이 그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죄의 용서를 보장받고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을 보장받는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아직 이런 구속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인정하고 이제 그에게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를 믿고 그러므로 또한 그에게 도달하는 길과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안내자인 그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그가 너희를 위해 얻은 것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이 땅의 삶은 헛된 삶이고 이런 길은 너희가 혼자 걷는 길이고 영원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다. 너희는 이런 길에 대해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와 함께 하는 올바른 이 땅의 삶을 통해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한 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았다. 그는 사랑으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영원한 신성의 겉형체가 되었고 신성이 이제 이런 겉형체 안에서 너희를 위해 한때 하나님을 떠난 엄청난 죄짐에 대한 속죄를 행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너희 모두는 이런 구속역사에 참여해야 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야 한다. 너희는 고난과 온갖 종류의 환란을 인내하며 견뎌야 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모두는 너희를 위해 흘린 그의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원하여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너희가 그를 따르고 어떤 일도 너희를 그에게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너희는 모든 긴밀함 속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말하고 너희의 모든 죄들과 너희의 고통과 고난을 그의 발 앞에 놓아 그가 너희에게서 이를 거두어 가게 해야 하고 그가 너희의 죄를 없애고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순종에 대해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거나 또는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상처에 치유의 손을 얹을 것이고 너희를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할 것이다. 왜냐면 그 자신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믿는 사람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너희를 그의 나라의 그에게 부를 때까지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진실로 성취가 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는 또한 너희에게 그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면 그가 너희에게 자신을 계시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가 단지 너희에게 계시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영적인 위험이든 세상적인 위험이든 더 이상 위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라. 왜냐면 이 길이 너희가 위험에 처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는 빛의 존재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모든 빛의 존재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돕고 또한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렸고 세상 앞에서 그와 그의 이름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이자 구세주이고 그는 너희 모두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단지 구속역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하고 너희 자신을 그와 그의 은혜에 의탁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너희를 안전하게 목표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B.D. No. 6850

1957년 6월 12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너희 모두에게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 여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이 땅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하고 너희가 그의 구속역사에 참여하려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의 이 땅의 삶의 목표였다. 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인간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다. 이말은 너희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너희의 죄를 그의 십자가 아래 그에게 옮기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의 신적인 사명을 믿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를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너희의 의지를 선언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생의 문에 도달하려면, 너희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길도 이 문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너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질문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의 사랑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항상 또 다시 들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귀를 막고 모든 말이 공허한 소리처럼 너희를 스쳐 지나가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역사에 관해 듣는 내용은 너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너희 안에서 아직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귀로 들은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축복의 문 앞에서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입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구속받지 못했고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의 피가 너희를 깨끗이 씻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가득한 가운데 영원의 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 자신이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너희의 죄를 의식하고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고 또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그의 용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짐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빛으로 가는 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너희가 여전히 그의 이름이 모든 것임을 믿기 원하고 깊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희를 여전히 짓누르는 죄의 결과인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을 믿기 원하면, 내가 이런 큰 죄짐을 너희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사는 너희가 탄식하는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이 땅의 길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자신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가 내 살을 먹는가.”

B.D. No. 3728

1946년 3월 28일

너희는 영 안에서 나와 연결을 이루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의 원천에서 기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받으면, 혼이 강해질 것이고, 육체와 혼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삶은 내가 정한 동안에는 살지만, 혼의 삶은 영원이 지속될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일은 혼을 먹이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하는 단 한 가지이다. 왜냐면 아직 삶을 즐기는 육체 안의 죽은 혼은, 너희가 이 땅의 생명을 잃어야만 하게 되면, 너희에게 멸망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죽은 혼이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죽은 상태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생명을 얻게 하라. 혼이 죽은 상태로 영원 속으로 들어가지 하지 말라. 혼이 생명이 있고, 저세상에서 일할 수 있고, 힘이 넘치고, 따라서 행복하게 되도록 돌보라. 혼의 생명은 힘이 충분하고 일할 수 있기 위해 영적인 양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나는 영의 양식을 주는 자로써 끊임없이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너희가 영의 양식을 받기를 자원하기를 기다린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씀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주기 위해, 너희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음식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 너희를 주의 만찬에 초대한다. 너희는 나의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배고픈 심장으로 다가와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하고, 나의 손님이 돼야 한다. 나는 너희의 혼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너희는 주의 만찬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너희는 주의 만찬을 지나치거나, 내 사랑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건드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나와 연결을 구해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나의 선물을 갈망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고, 아주 훌륭하고, 나의 양식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심장이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야 한다. 너희는 나와 연결을 구하고, 너희의 혼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가와, 내가 모든 사랑으로 너희에게 제공하는 만찬을,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인 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말씀을 축복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은 나와 나의 사랑을 갈망하며 섭취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의 갈망은 충족될 것이고, 그는 항상 또 다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한번 나의 사랑의 양식을 섭취한 사람은, 나의 사랑의 원천에서 쾌활하게 된 사람은 항상 또 다시 나의 사랑의 양식을 다시 찾기 때문이다. 그는 혼의 양식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끊임 없

는 내 식탁의 손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항상 끊임없이 만찬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혼은 생명이 되고, 죽음을 이겼고, 절대로 죽음의 상태에 다시 빠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약속한 것처럼, 나의 양식이 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B.D. No. 3954
1947년 1월 9일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신을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계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한 가운데로 끊임없이 발산된다. 이 능력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서 형체를 입고, 자기 자신을 가장 개인적인 표현으로 말씀 안에 형체를 입는다. 너희 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너희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음성을 심장 안에서 음성으로 듣거나 또는 생각으로 받으면, 너희는 살게 되고, 영원히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중단하지 않고 창조하는 영이고, 쉬지 않고 역사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은 그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절대로 종말이 없는 그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창조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능력이고, 이 말을 자신의 심장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하고, 그는 죽음을 피해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 창조하고,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곳에서, 중단없이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항상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쾌활하게 하면, 모든 무능력한 상태는 너희에게서 사라져야만 하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연약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은혜에 합당하면, 너희가 이 은혜를 갈망하고, 너희 안에서 세밀하게 낮은 소리로 울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는 증가된 힘의 공급을 의미하고,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생명은 충만한 능력을 갖는 일이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일이다.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너희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영적인 삶도 똑같이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가 요구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다. 그는 혼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혼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능력이 충만한 생명의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양식을 혼에게 제공한다. 그는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먹고 마시게 한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제공되는 양식을 자주 섭취하라. 이 양식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냐면 그는 너희가 영원히 살기 원하고, 너희 자신이 심장을 닫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느끼게 해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함을 받았다. 단지 나의 말씀이 너희를 이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영접하라. 나의 말씀이 너희 자신에게 말하게 하라.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베푸는 이러한 아주 큰 은혜를 의식하라. 왜냐면 그가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희를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활동. 하나님에게서 나온 힘과 사랑.

B.D. No. 5017

1950년 12월 10일

생명을 깨우는 힘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머문다. 왜냐면 사랑이 유일하게 사랑의 원천이고 또한 힘의 원천과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일은 단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연합하고 이런 연합이 또한 생명을 보장하는 힘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힘이 전달되는 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일은 증가된 사랑을 행하려는 추진력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영적인 추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직접 힘을 받는 일로 느낄 수 있고, 자체가 힘이고 특히 생명이 깨어나게 하는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로 느낄 수 있다.

혼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나 갈망을 통해 영의 영역으로 올라가면, 혼은 살기 시작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혼 안의 영이 역사하고, 역사하는 일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혼이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자신이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 선다. 이런 단계에서 혼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살아 있는 것은 항상 일하고, 항상 일하는 일이 이 땅을 마친 후에 영의 나라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영적인 재물로 구성된 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즉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왜냐면 그가 한번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그가 영적인 일을 하도록,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끊임없이 위를 추구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은 항상 인간 자신이 이뤄야만 한다. 이루는 일은 단지 사랑이 이를 수 있다. 그러면 힘을 받는 일이 보장되고,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 든 사람은 그가 내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는 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내 말씀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했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가 나 자신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가 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은혜의 선물을 거절한 일을 몹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가 진지하게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은혜의 선물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지라도 편안함과 부주의로 내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나를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내 음성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야만 한다.

나는 사람의 내면에 나에게 대한 저항이 없다면, 이런 모든 사람에게 그의 심장에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내 말씀은 그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그의 심장과 그의 귀를 닫고 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했고 내 말을 영접하는 일의 중요성을 너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 혼의 양식으로 유일하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무시할 수 없다. 너희는 혼의 양식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 혼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과 음료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나를 영접해야만 하고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내 말씀이 제공될 때 너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에게 제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너희가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 지를 깨닫게 되면, 너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혼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지만 너희가 경솔하게 이를 거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내 말씀이 너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 말씀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냐면 움추리고 굽주린 혼이 언젠가 내 앞에 서서 자신의 상태를 통해 이 혼이 이 땅의 삶에서 내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혼의 상태와 다른 방식으로 혼을 도울 수 없다. 왜냐면 혼이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혼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의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이제 시급히 필요한 것을 힘들게 얻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혼에게 풍성하게 제공되었고 자신에게 저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마련해주었을 것을 이 땅에서 활용하지 않은 일에 대한 혼의 후회는 크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지 소수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제 이 땅의 육체를 떠나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내 말씀을 무시한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왜냐하면 혼은 자유의지로 자신을 형성한 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혼은 잘못 형성된 상태로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내 말씀이 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찬식의 의미.

B.D. No. 7909

1961년 6월 3일

어마나 자주 너희에게 이미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해주었느냐? 얼마나 자주 너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제공하는 일이 내 말씀을 제공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에게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말씀임을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제공함을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심장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을 말했느냐?

너희의 혼은 이 전에 병들었기 때문에 혼을 건강을 도와주는 양식을 섭취해야만 하고 혼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혼에게 능력을 주는 양식을 섭취해야만 한다. 혼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만 한다. 혼은 건강한 양식이 필요하다. 이 양식은 단지 나 자신이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만 하고 영의 나라로부터 양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그에게 다가와 그로부터 음식을 섭취하게 초대하는 초대자인 내 식탁으로 나와 나로부터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해야만 한다. 너희의 혼은 빵과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 내 살과 내 피는 올바른 양식이다. 그러므로 혼이 나 자신이 높은 것으로부터 혼에게 보내 주는 내 말을 받으면, 혼은 나 자신을 영접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혼에게 직접 또는 혼이 나를 섬기는 종을 통해 내 말을 받던지 간에 나 자신이 항상 혼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항상 나 자신이 그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혼은 항상 풍성하게 차려 있는 그러므로 내 손님이 되기 원하는 어떠한 혼에게 양식이 부족하게 되지 않는 내 식탁의 성찬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찬을 어떠한 외적인 형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너희가 외적인 관습을 행하고서 너희가 이런 의식을 행했으니, 나 자신이 이제 너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고 성찬을 친교로 이해하는 너희가 이 의식을 행하면,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가 모든 심장으로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의 혼이 하늘의 양식을 생명수를 내 말을 굶주려 하고 묵말라 하지 않으면, 이런 의식은 항상 단지 외적인 행동과 습관으로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말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내 말에 대한 큰 갈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다고 나와 성찬을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나는 너희

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 살과 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나와 성찬을 나누기 위해 내 식탁에 들어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 자신을 영접한다. 나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그의 혼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혼은 성장할 것이다. 혼은 내 말을 통해 내 의지를 알 것이다. 내 말은 혼에게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단지 듣는 자가 아니고 내 말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혼은 진실로 이제 영원히 잃을 수 없게 될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사람들이 너의 혼을 위한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일꾼을 보내 모두를 내 손님으로 나와 함께 성찬을 나누기 위해 내 식탁에 참여하게 부른다. 어떤 사람도 내 배부르 못한 상태로 식탁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식탁은 나에게 의해 먹고 마시기 위해 나에게 다가오는 모두를 위해 풍성하게 차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능력을 제공하는 양식과 치료하는 음료를 너희 모두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 굶주림과 굶주림이 너희를 나에게 인도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 혼은 쾌활할 것이다. 혼은 항상 또 다시 혼의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새롭게 능력을 받을 것이다. 혼은 길 가운데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혼에게 양식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혼이 단지 양식을 원하면, 혼이 자신을 가장 긴밀하게 나와 연결을 시키고 나로부터 양식을 제공받기 원하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 갈 것이다. 나는 너희 심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나는 나를 자원해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언제든지 성찬을 함께 할 것이고 그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형식으로 만족하는 곳에 너희가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는 내 말에 너희의 귀를 닫는 곳에 내가 거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으로부터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거절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양식을 받지 못하고 머물 것이다. 혼은 궁핍 해져야만 하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혼은 위축되고 불쌍한 상태로 영의 나라로 가야만 할 것이다.

아멘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먹고 마시라.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B.D. No. 2122

1941년 10월 19일

올 바른 지식 안에 있다는 의식이 또한 그가 진리로 깨달은 것을 이웃 사람에게 물려 줄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진리를 원하는 지, 어느 정도 원하는 지, 염려하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는 진리를 이웃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며, 단지 완강한 거부만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전하는 의무에서 그를 자유롭게 한다. 이는 투쟁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싸우는 곳에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를 적게 요구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다. 그러나 중개자를 통해 그들에게 영접하도록 진리를 제공하면서, 그들 안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면, 이는 강요할 수 없는 그의 자유의지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의지가 영접하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무지한 사람들을 지식으로 인도하려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의 과제이다.

그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둔다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량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되고 지도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겁을 내며,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기 때문에, 그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이다.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까지 순종해야만 한다.

그의 뜻은 사람들이 육체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그를 생각하는 일이다. 그는 먼저 빵과 포도주를 축복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내어, 음식이 그들에게 육체적인, 영적인 힘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주님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의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갈망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동시에 음식을 축복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양식과 함께 동시에 영적인 힘을 취하고, 그는 이제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영적인 힘이 그의 혼을 향해 흐르면, 혼은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양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사람은, 즉 주님을 긴밀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혼을 위한 힘과 영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행해 있을 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대화하는 일이고, 이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자녀는 감사하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에게 제공하는 양식인, 아버지의 살과 아버지의 피인,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 양식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의 위를 향해 추구하는 일에 힘을 제공한다.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는 말은 인간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축복하는 일에도 적용이 된다.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제공자를 생각하지 않고 즐길 때, 단지 몸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이 육체 외에도 혼에게 힘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고, 이런 축복을 긴밀한 기억을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의 생각은 침묵의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긴밀한 생각에는 이런 모든 요청이 포함이 된다. 왜냐면 긴밀한 생각은 사랑을 향한 갈망을, 다시 말해 연합을 향한 갈망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지 이런 사랑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하면서 행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께 축복을 구함으로써, 모든 육체를 위한 음식이 혼의 음식이 되게하기를 요구한다.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몸을 위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긴밀하게 기억하면서, 축복을 구한다면, 그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왜냐하면 영의 양분이 이제 그에게 흐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잘못 이해가 되었고, 올바른 설명은 영접을 받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의식을 만들었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진리를 향한 갈망도 단지 연약해졌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은, 진리를 갈망하는 곳에서만 단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 왜냐면 그들이 단지 너무 적게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양식을 몸으로만 돌리고, 사람 안의 혼은 빈손이 되고, 그러므로 혼은 또한 영의 양식을 요청하기 위한, 영적 굶주림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는 항상 주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기 전에, 모든 음식을 축복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아멘

“나를 기억하며 실행하라.” 주의 성찬.

B.D. No. 3740

1946년 4월 10일

나로부터 힘이 나오고, 지혜와 생명도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힘과 빛의 근원으로 깨달아야만 하고, 힘과 빛을 받아 생명을 얻기 위해, 나와 연결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즉 빛과 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돼야만 하고, 그러므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풍성한 힘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하고, 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연합이 되고, 이런 연합은 진정한 친교이다. 너희가 나와서 결합은 이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힘도 빛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의 흐름이 이제 사람의 심장 안으로 전해지려면, 영원한 원천과의 결합이 먼저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연결을 이루기 위해 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는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의지는 생각의 활동을 요구한다. 즉 나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원천으로, 제공자로, 심장과 이성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은 생각으로 나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의지가 역사하고, 의지가 나와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역사하게 된 의지는 사랑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소통하기 원하고, 나와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계명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은사를 나눠 주라. 도움이 필요한 너희 이웃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이웃사람의 혼과 몸을 쾌활하게 하라.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항상 계속하여 고난을 줄여주라.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나를 항상 바라보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사랑의 계명을 성취한 것이고, 이로써 나와서 연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성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심장을 사랑으로 형성했을 때, 비로소 내가 너희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연합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아직 외적인 형식을 많이 생각할지라도, 이런 일은 너희 심장과 혼의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고, 힘과 빛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역사하게 만들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할지를 나 자신이 너희에게 가르쳤고, 끊임없이 나를 따르도록 권고했다. 나와 내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의 영을 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즉 너희는 내 자신의 일부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나를 너희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영원한 힘과 빛의 근원인 나와 하나가 될 것이고, 너희는 또한 제한이 없게 빛과 힘과 지식과 권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946년 4월 10일) 나와서 연합이 먼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임재할 수 있고, 그런 후 내가 비로소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의미에서 살과 피를, 내 몸을 너희가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혼에게 영적인 양식인 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찬을 제공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전에 사랑을 행하지 않고도 양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런 일은 교제가 아니고, 나와 연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씀이 아직 성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단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이 성찬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 비로소 나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일은 주는 일이고,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도 또한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쉬지 않고 전하고, 나눠주는 일이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식탁에서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와 성찬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나의 손님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나의 본질이고, 영원히 나의 본질로 남게 될 사랑으로 바꿀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머물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사람들이 택한 형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이런 일은 항상 외적인 역사에 지나지 않고, 심장이 단지 감정적으로 너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비로소 깊은 영적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면 단지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성찬을 정한 것이다. 너희는 항상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주목해야 하고, 모든 일에서 나를 따라야 한다.

너희가 나눠주는 것처럼 너희가 또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합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배부르고, 힘이 있게 될 것이다. 나를 기억하며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고, 이를 통해 나와 확실하게 연합을 이루라. 이런 연합이 너희에게 나의 말씀과 나의 살과 피의 공급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일이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이다. 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헤아려 보려는 너희의 의지가 진지하다면, 너희 모두는 실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임명할 때 주는 말씀.

B.D. No. 7666

1960년 8월 5일

내 은혜의 흐름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면, 너희에게 항상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만약에 자원해 영접하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향하고 너희가 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면, 자원해 영접하는 일이 보장 된다. 나는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는 내 말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기 원하는 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말을 통해 문자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의식을 만들었고 너희는 이 떡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나 자신을 너희 안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떡과 포도주를 내 말씀의 힘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너희가 하늘에서 온 만나이고 생명의 떡인 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육신이 된 말씀인 내 말씀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게 만들어야만 한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는 손에 가득하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그들에게 혼의 양식을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인 내 힘으로 축복을 받은 내 말씀을 주었다.

나는 내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내 말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로 삼았다. 왜냐면 그들이 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혼을 위해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내 말씀을 나로부터 나온 상태 그대로 깨우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단지 영원한 진리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단지 짧은 동안에만 거했고 이 기간 동안 내 제자들의 가르치는 직분을 위해 내 제자들을 준비시켰다.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내가 내 어려운 골고다의 길을 가기 전에 내 제자들과 성찬을 할 때 내가 이제 그들을 파송하는 사명을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대해 내 가르침에 대해 내 앞에 놓여있는 일에 관해 세상에 알리라는 사명을 알려 주었고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말을 했다. 나는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포도주가 담긴 잔도 나누어 주었다. 내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라고 그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을 알았고 그들은 내가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요구를 그들에게 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영원히 더 이상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떠나지 않게 했다.

제자들은 나 자신이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 나누어 준 것처럼 그들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로써 나는 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직분을 위해 양육했던 직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너희 사람들이 내 말씀에서 유추해낸 것과 같은 이런 성찬식을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고 이로 인한 효과를 위해 단지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일 외에 다른 조건을 성취시켜야만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기대하는 일은 내 뜻이 아니다.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 사명은 진실로 내 살과 내 피인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떡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고 만약에 내가 직접 말해줄 수 있고 내 힘이 직접 그 안으로 흘러 들어 갈 수 있게 되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인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룬 사람에게 이 떡은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왜냐면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그 안에 나 자신과 내 말씀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고 나는 단지 사랑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적인 의식을 행하며 떡과 포도주를 섭취하지만 그러나 그의 심장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의 심장 안에 내가 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나는 사랑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흥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사랑과 싸워 이기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되는 일과 내가 그 안에서 내 살과 내 피와 힘을 가진 내 말씀을 제공하는 일이 진정으로 나와 하나가 된 일이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나를 생각할 것이고 그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그는 항상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는 위로 성장하는 길을 갈 것이고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영적 친교.

B.D. No. 2085

1941년 9월 24일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연합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인간은 이런 결합으로부터 자신의 혼을 위해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혼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영적 교제가 이뤄져야만 한다. 영원한 신성이 이런 친교를 갈망하는 사람의 심장 안에 거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사람의 심장에 있는 사랑, 한 가지만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다. 왜냐면 사랑과 하나님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인간의 생각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향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 안에 사랑의 느낌이 확산되어야만 한다. 영원한 신성이 사람이 영원한 신성을 의식하게 해야만 하고, 사랑의 신비를 알게 해줘야만 하고, 신성의 힘과 권세에 대한 지식과 너희와 창조물인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한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말씀을 영접하는 일은, 즉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또는 심지어 거부하는 일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말씀은 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말씀은 형체가 된 하나님의 힘이고, 외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역사하고, 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말씀은 내적으로 역사하는 살이고, 진정한 생명을 의미하는 피이다.

하나님은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해 사람 안에 사랑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그의 주변의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하나님은 배고픈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살을 먹기 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영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열렬한 갈망을 갖기 원하고, 그들이 말씀에 굶주린다면, 그들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힘인 피를 마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사랑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되고, 그들이 사랑을 베풀자마자, 사랑

을 받기 때문이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임재로 그들의 심장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일이, 연합이 이뤄지게 된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머문다.“ 내가 방문하기 원할 때, 자신의 심장을 여는 사람은 나를 모든 충만함으로 모실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의 영과 나의 힘이 그에게 흘러가고, 내가 임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가 나를 완전히 영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긴밀하게 나와 연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라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연합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연합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외적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연합이다.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충만한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고, 축복된 연합이 이뤄지게 하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 왜냐면 사랑은 연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외적인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외적인 형식은 인간이 최고의 존재인 영원한 신성을 지극히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그러나 전혀 내적인 사랑의 영이 없고, 이로써 주님의 임재를 전혀 불가능하게 만드는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심장의 사랑의 정도를 보고, 인간이 추가한 형식은 보지 않는다. 추가된 형식은 추가된 형식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자주 전혀 사랑 없이 이런 형식을 수행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님과 연결되는 일은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단지 아주 적게 추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아직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긴밀한 사랑으로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신성을 자신에게 끌어드리고, 그가 영적인 연결을 위한 외적인 형식을 무시하더라도, 사랑을 통해 신성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장을 보고,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친교. 과정. (출생)

B.D. No. 4142

1947년 10월 13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공급을 보장하는 일이다. 왜냐면 영적인 **영** 교통은 넘치게 은혜를 베푸는 나 자신과 결합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교통을 통해 인간의 혼은 변화된 단계에 들어가고, 혼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자신 안의 영과 긴밀하게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49/102

연결이 되고, 혼 자체가 영화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영과 연결이 된 축복을 느낀다. 이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감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혼이 단지 이 땅과 분리가 되고, 어느 정도 신체와 분리가 되어, 영의 영역에 거한다. 나 자신이 모든 사랑으로 혼을 사로 잡고, 혼 안으로 사랑을 발산하고, 힘이 충만하게 한다. 이 힘이 혼이 전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단지 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원하게 한다.

영적인 친교는 의지를 나에게 완전하게 내어주는 상태이다. 왜냐면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가장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나에게 내어준 혼이 단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성품의 변화는 먼저 그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이뤄지고, 그러면 그에게 나 자신을 향한 긴밀한 갈망이 뒤따르게 되고, 이 갈망이 아주 강해, 혼이 나의 음성을 듣고 느끼기를 갈망하게 한다.

이 갈망을 통해 혼은 나 자신을 자신에게 이끈다. 왜냐면 사랑은 연합되기를 구하고,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고, 영원한 사랑 자체인 내가 나의 피조물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내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일 외의 다른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혼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킨다.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혼이 나의 임재를 알려주어, 혼을 행복하게 한다. 이로써 혼이 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내가 가까이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내 사랑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게 하고, 나의 발산을, 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나의 피를 받게 한다.

영적인 친교는 나와서의 긴밀한 연합이고, 절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머물 수 없다. 혼이 거듭나게 될 것이고, 혼이 자신의 걸형체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의 영이 혼과 연결이 되어, 혼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고, 혼이 영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진리를 포함한 풍부한 지식을 받기 때문이다. 혼은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힘을 가진 가운데, 지식과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나는 끊임없이 혼과 하나가 된다. 왜냐면 한번 영적으로 교통한 사람은 더 이상 나와서의 연합을 잃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임재와 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의 갈망은 끊임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거듭난 혼은 끊임없이 출발점으로 돌아 가고, 혼은 자신이 영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느끼고, 자신이 자녀로서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끊임없이 사랑 안에 머물고, 그러므로 영원히 더 이상 나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혼 자신의 영적인 재물을, 혼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의 보물을 이웃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을 때까지 단지 이 땅이 혼을 묶어 둔다. 이로써 이웃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게 행복한 나와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고, 이웃 사람들이 스스로 사랑을 통해 찾는 행복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아멘

1952년 5월 6일

영적인 성찬과 영의 불씨와 영원한 아버지 영과의 연결은 단지 사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너희는 또한 긴밀한 기도를 통해 너희의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킬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부름은 먼 곳에서 머물게 된다. 그러면 아직 긴밀한 교제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교제는 사랑을 행함으로 즉시 이뤄진다. 이로써 너희가 동시에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와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다. 즉 나 자신이 너희의 혼의 양식을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하늘의 양식인 내 말씀을 제공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너희 안에 임재하게 하면, 즉 나와 연합을 이루면, 너희는 단지 말씀은 영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 소통은 살과 피인 자체에 힘을 가진 내 말씀을 내 손에서 받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재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임재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지 않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로써 이웃이 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사랑이 유일하게 자녀를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사랑을 통해 사람이 비로소 자녀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너희는 선명하게 깨달으라.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식탁에 있는 좋은 양식을 먹고 마시고, 영원히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선명하게 깨달으라. 내 말씀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고, 내 말씀은 진실로 쾌활하게 하고 힘을 준다. 내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 또한 내 임재가 증명이 된다. 반대로 말해 힘의 나타남이 없이는 내 임재를 생각할 수 없다. 나 자신이 힘이요 빛이기 때문에 나는 또한 사랑을 행함으로 자신 안에 내 임재를 허용하고, 내가 그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빛과 힘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빛과 힘은 내 말씀에서 나오고, 혼은 높이 성장하기 위해 빛과 힘이 필요하다. 즉 사람이 나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그가 내 손님일 때, 즉 나와 가장 긴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사랑이 응답을 받게 되면, 내가 혼에게 주는 양식이 빛과 힘이다. 이런 일을 유일하게 성찬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나는 너희가 이런 일을 주의 만찬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다음과 같은 말로 내가 만든 성찬에 너희 모두를 초대한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이다." 너희는 내 손에서 너희 혼을 위한 양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단지 사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나와 영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

아멘

성찬식과 사랑.

B.D. No. 7120

1958년 5월 14일

사랑이 없이는 나와 교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원래의 성품이고 사랑은 단지 같은 것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

이 있어야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연합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찬식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 사람들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면, 비로소 너희 안에서 내가 임재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외적인 형식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임재를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나를 기억하기 위해 행하라"는 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생각해낸 외적인 형식을 단지 행함으로써 내가 이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지나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심장 안에 나 자신을 영접하기 위한 조건은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나와 함께 성찬식을 행한 내 제자들은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을 준 내 말을 이해했다. 왜냐면 그들은 나로부터 받은 생명의 양식을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의 빵을 나누어 준 것처럼 나누어 줘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가 든 잔을 건넨 것처럼 생명수를 제공해야 했다.

나 자신이 육신이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었다. 나는 나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 자신을 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과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제공할 것이다. 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에게 임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이런 연합이 불가능하다.

나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설교할 수 있고 그들이 사랑을 행하게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아직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한 심장 안에 거할 수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제 생각해보라. 그들은 실제 그들의 관점으로는 주님의 식탁으로 향한다. 그러나 올바른 사랑이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심장은 나를 영접할 능력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 된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생각하라.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충분히 행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내 임재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 단지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지라도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적인 형식을 지키는 일보다 내 말씀에 적게 주의를 기울인다. 내 말씀이 유일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단지 형식적인 관습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할 수 있다.

내 제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직분을 부여할 때 해준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보기 원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도 사랑으로 사는 삶이 요구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작업하는 일이 요구 된다. 반면에 여러 가지 관습들은 이런 자신을 극복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고 이 때문에 관습들은 열심히 지킨다. 관습들은 혼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심장 안에 내가 비로소 임재할 수 있게 해주는 나와 긴밀한 연

결을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인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이 땅의 삶의 과제를 행하는 일에 사람들이 단지 무관심하고 이 일을 게을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와 연합되는 일이 인간의 첫 번째 목표이며 마지막 목표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목표를 이뤄야 하고 그가 단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로써 자신의 성품을 자체가 사랑인 내 원래의 성품과 같게 만들려고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과 피.

B.D. No. 3999

1947년 3월 15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기 원하고, 나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의 의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심장으로 나를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나 자신이 말씀의 형태로 임할 수 있다. 왜냐면 나의 말씀이 나 자신이고 나의 말씀은 나의 살과 나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의 연합은,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는 또한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야만 하고, 이 사랑을 이제 사랑이 필요한 이웃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랑을 통해 나를 자신에게 이끌고, 나는 나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고, 그들이 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나와 연결을 이루도록 내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깊이 깨닫게 한다. 이런 연결은 너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영적인 연합이다. 왜냐면 너희는 나와 의 연결을 통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받고, 나의 뜻의 성취시키는 정도에 따라, 너희 지식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제 너희에게 나를 계시하고, 이전에는 나의 통치와 사역과 나의 영원한 구원계획에 대해, 걸쳐 있던 모든 가림막을 치우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준다. 이런 지식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너희 자신의 사명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마쳐야만 할 때, 이런 지식은 영적 보물로 너희에게 남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계시하고,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 나의 영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일은 단지 사랑을 통한 나와 의 연합을 통해 가능하다. 내가 사랑 외에 달리 사람과 연결을 이룰 수 없음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받기 위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 위해, 심장에 반응을 일으키는 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사랑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는 실제 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너희가 나와 연합하기 위해 성취시켜야 할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즉 나의 말씀이 비로소 나의 살이요 나의 피가 되게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으로 형성하여 나 자신이 너희 심장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만, 나 자신이 비로소 말씀 안에서 너희 곁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나의 말씀을 긴밀하게 갈망하는 일은 나 자신을 향한 갈망을 증거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한다. 그러면 나는 진실로 그의 갈망을 채워주는 일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나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도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는 내가 그와 연합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나의 말씀과 나의 살과 피를 받는 일을 통해 내적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고, 자

신을 만족시키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의 혼은 성숙하게 될 것이다. 나와 연합이 모든 일을 일으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모든 존재를 나의 힘과 빛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제 계속해서 그에게 나 자신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제 나의 영을 통해 그와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약속한대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경청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B.D. No. 3149

1944년 6월 5일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말로는 내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영이 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나의 영과 연결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믿음으로 살지만, 나의 말이 나와 영적인 연결을 이루도록, 말을 실천하려는 시도를 아직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지는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만큼 강하지 않고, 유일하게 나의 말을 듣는 일로는 나와 연결을 이루지 못한다. 사랑을 행하는 일이 너희의 심장 안에서 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돼야만 하고, 그들이 이런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나를 그들에게 이끌고, 그들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고백할 수 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이 땅으로 전해진 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고,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옛적부터 그들에게 제공되는 곳에서 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의 말씀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달되면, 완전한 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말씀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말씀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와서의 긴밀한 관계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결과로 비로소 나타나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부에서 주는 말씀을 통해 이런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이런 지식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은 진실로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사람의 의지를 통해 사람 자신이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지식이 없고, 그들은 또한 어떤 면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다가오는 믿음의 싸움을 견디기 위한 특별한 힘을 모으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산 삶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단지 나와 생명력 있는 연결에서 나오는 힘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단지 그가 가르침을 통해 전달받은, 그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전통적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믿음을 위해 깊은 심장으로 나설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을 위해 깊은 심장으로 나설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의 의지를 통해 나의 말씀을 자신 안에서 듣거나, 생각으로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다음을 외쳐야 한다. “경청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여기에 너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지, 아니면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날에 충분하지 않을 죽은 형식적인 믿음인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

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라. 나의 말씀을 심장 안에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이로써 말씀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너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더 열심히 행하도록 이끌게 하라. 이런 일을 통해 힘이 증가하게 하고, 너희 안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듣고, 끝까지 견디라.

아멘

행하는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연합.

B.D. No. 4474

1948년 11월 2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이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웃사랑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가까이에 거할 수 없고, 너희에게 임재할 수 없다.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살고, 단지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이웃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얼마나 무력하게 되고, 너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얼마나 적게 일할 수 있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권세가 크고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창조할지라도 너희에게 빛과 힘이 없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희의 이 땅의 모든 노력은 공허하게 된다. 왜냐면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이룩한 모든 것을 남겨둬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역사가 영원에까지 너희를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영원히 얻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사랑의 태양 광선 아래 너희 자신을 따듯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빛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갈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의 갈망을 항상 끊임없이 만족시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나의 나라의 후보자로 만들기 원하고, 너희를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 너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로써 나 자신이 사랑인 나를 너희에게 이끌면,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이뤄진다.

시험을 해보라.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려는 의지를 드러라.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이 나로부터 받아, 너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선물을 나눠주라. 이웃 사람이 너희에게 사랑의 선물을 구할 때,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하라. 너희의 자기 사랑을 뒤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게 되면서, 너희는 성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살 것이고, 나의 임재가 너희를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임재로 나의 말씀 때문에 이웃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웃을 사랑을 행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이 계명을 유일한 계명으로 성취시키면, 너희는 진실로 나의 임재를 보장받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너희는 영의 나라를 얻은 것이다.

너희가 축복받기 원하면, 너희는 이 계명대로 행해야만 한다. 너희는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 가운데 서로를 도와야만 한다. 이로써 내가 또한 같은 정도로 너희를 도울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너희의 사랑을 이웃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할 때, 비로서 내가 너희 가까스로 다가 갈 수 있다. 너희는 모두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이

고, 나는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줄여주고,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의 약속의 성취.

B.D. No. 6584

1956년 6월 30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계시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위대한 약속을 너희에게 했는지를 아느냐? 사랑을 통해 너희 심장 안에 나를 위해 거처를 마련한 너희 안에 내가 임재한다는 증거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귀한 것을 제공하고 그는 나로부터 들을 수 있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는 그를 향한 내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는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에게 나를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했고 이런 약속의 성취를 단지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라는 내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과 연관시켰다. 그러나 사랑이 유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게 한다.

내 모든 약속은 나와 이웃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요구한다. 왜냐면 나는 항상 너희의 믿음을 따라 너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돼야만 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약속은 너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목표를 의미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에게 어떤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한다.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에게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약속의 성취를 절대로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비록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너희가 자유롭게 사랑을 행해야만 할지라도 너희는 이런 계명을 통해 내 뜻에 대해 알아야 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도 억지로 행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강요이다. 그러나 사랑은 강요할 수 없고 어떤 자유한 것이다.

사람은 축복되기를 원한다면, 축복이 유일하게 사랑을 행하는 삶에 달려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계명의 형태로 그에게 사랑을 강조한다. 그러면 너희 사람들이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 또는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지는 자유이다. 왜냐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은 세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로 영적 재물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계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재물이다.

너희 안에서 내 음성을 듣는 일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능가하는 내 사랑의 증거이다. 그러면 나와 사람 사이의 분리가 사라지고 나는 항상 또 다시 그에게 아주 가까워져 그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의 깨달음이 증가 된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의 눈을 가리는 모든 베일을 제거하고 내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내 역사와 역사를 개관해보게 하고 그 자신에게 내 성품을 드러내어 그의 사랑이 항상 더욱 커지게 하고 그가 이미 이 땅에서 나를 섬기고 또한 영원 가운데 나를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르친다. 이런 긴밀한 관계가 너희 혼을 위해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을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약속에 단지 희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면 이 약속은 사랑의 삶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너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너희 안에 내 임재와 내 임재에 대한 증거이다. 너희 안의 모든 것이 빛과 생명을 얻고 너희가 스스로 내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내 임재를 의심하지 않게 되려면, 너희는 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기 위해 이제 항상 단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참된 교회의 회원.

B.D. No. 4721

1949년 8월 22일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왜냐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인류를 위해 흘린 그의 피를 통해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역사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의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베드로는 그의 제자들 중 가장 강한 믿음을 가졌다. 그는 인간 예수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었다. 비록 그가 이 땅의 위험 가운데 세상을 우선에 두었고, 세번이나 부인했지만, 이로 인해 그의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았고, 단지 그의 육체가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험으로 인해 실패했다. 즉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표시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선포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그의 이웃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단지 올바른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얻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1949년 8월 23일) 그러므로 모든 교파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의 복음을 알고 그의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삶을 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예수의 영 안에 머물고, 그의 생각이 절대로 예수를 벗어나지 않고,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추구하는 일이 유일하게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세운 교회의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 왜냐면 예수의 복음인 예수의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시도하고, 자신 안의 영이 깨어나게 하는 영의 역사가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외적인 결속이나, 외적인 형식을 성취시키는 일이나 또는 강제적으로 사람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일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그런 일들은 단지 이름으로만 외적으로 속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영의 깨어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우두머리로 여기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한 유일한 길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이고, 하늘에서 온 양식과 포도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또한 하늘로 인도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과 가장 긴밀한 연합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즉 말씀은 축복되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이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곳마다 항상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이고, 항상 단지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교회의 일원이고, 그는 이 땅의 조직에 묶여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진실로 믿을 가진 추종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들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아멘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 주의 만찬.

B.D. No. 4925

1950년 7월 6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은 영원을 위해 말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내 말 안에 넣어 준 의미를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내 말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 일을 내가 그런 왜곡된 해석을 인정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단지 이런 해석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나의 말씀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지 깨달음을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해석을 옹호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르게 진리에 합당하게 깨닫기 원하는 갈망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내 말씀을 옹호하지 않는다.

(5. 7. 1950) 믿음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증거로 내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인용하는 일은 분명하게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항상 유일하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의 영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내 말씀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모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내가 이제 하는 말은 항상 단지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말씀을 전체와 연관관계 가운데 봐야만 한다. 한 말씀을 맘대로 택하여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

나의 가르침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내 가르침은 깨우침을 받은 생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깨우침을 받지 못한 영에게 내 말씀은 단지 무의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생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가 단지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단지 이성적인 해석은 연관 관계를 찾을 볼 수 없고, 순수한 이성적인 생각이 때때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의미를 내 말씀에 부여한다. 왜냐하면 항상 진리와 거짓이나 오류 사이의 싸움이 있고, 양쪽의 대변자들이 사람의 혼을 얻기를 원한다는 한 가지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혼자서 역사하는 곳에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항상 개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와 그가 나를 부르는 일을 통해 사람의 영이 깨우침을 받은 곳에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주의를 받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50년 7월 6일) 너희 사람 모두가 너희 안의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또한 나의 가르침의 어느 곳에 오류가 스며들었는지를 즉시 깨달을 것이고, 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되었고, 의미에 합당하게 해석되지 않은 것을 즉시 깨달을 것이다. 너희는 또한 밝은 생각으로 스스로 모든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제공하는 나의 지원이 너희에게 항상 확실하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적자가 너희를 무지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는 중요한 믿음의 가르침과 관련된 진리를 어둡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나의 오류가 다른 오류를 끌어드리고,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한다.

나는 형체 안에 묶여 있고, 나의 일부분이고, 전에 타락한 후에 서서히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 영적인 존재 안 외에는 세상의 물질로 된 걸 형체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형체 안에서 너희에게 임재하기 위해 아주 온전한 존재이 내가 너희가 볼 수 있는 형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의식할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지는 유일하게 나를 향한 너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특정한 과정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될 수 없고, 단지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을 통해 나와 직접 연결을 이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한 만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들에게 말한 나의 말을 너희가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떡과 포도주를, 양식과 음료를 나눠 주었다. 내가 주었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 나는 항상 주는 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양식을, 혼의 양식을 나눠줄 것이다. 이러 양식은 단지 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내 말씀이 너희에게 위로 성장할 힘을 준다.

나를 생각하면서 똑 같이 행하라. 이 말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라는 가장 단순한 가르침이었다. 이웃 사랑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내 말씀을 받게 하고, 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이로써 내가 약속 한 대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게 한다. 내가 행한 의식은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친 가르침이었다.

영의 깨우침을 구하는 사람은 밝고 선명하게 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 깨어나는 일은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을 전제로 하고, 또한 그가 전적인 진리를 얻게 하는 나와 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아직 나를 이 땅의 물질적인 형체 안에 묶여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그들의 영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오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없다.

아멘

주의 만찬. 영적인 감각. 육체와 피.

B.D. No. 4379

1948년 7월 18일

주님의 식탁에서 먹으려는 계속되는 갈망은 주님의 사랑을 보장받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원할 때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내 식탁은 항상 굶주리고 목 마르고 쾌활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로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식탁에서 먹는 모

든 일은 연합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내 살과 피를 제공하지 않고는, 나의 말씀의 힘과 함께 나의 말씀을 제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직접 또는 내 일꾼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져 받은 너희가 이런 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운데 너희 심장 안으로 영접하면, 너희는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 안의 영의 불씨와 연결을 이루고, 혼인이, 연합이, 영적인 친교가 이뤄진다. 그러면 나는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고, 너희에게 양식과 음료를 주고, 너희와 함께 만찬에 참여한다. 너희는 내가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라는 말과 함께 양식을 떼어 주고 포도주를 건네 준 내 제자들과 같은 과정을 경험한다.

너희는 이제 내가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넣었는 지 이해하느냐? 너희가 내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가! 왜냐면 내 살과 피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혼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 혼이 성숙하게 되야 하고, 혼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야 한다. 혼은 지속적으로 단지 나에게서 직접 얻을 수 있고, 혼이 나와 연결을 이룰 때 내가 언제든지 주는 힘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양식을 떼어 혼에게 제공한다. 혼이 나의 살인 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축복한 나의 말씀과 함께 혼에게 힘과 피가 흘러 간다.

내 손님이 되기 원하고 혼의 양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굶주리고 피폐해질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초대하고, 나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그가 나를 위해 열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만찬을 나눈다. 나는 내 식탁에서 그가 먹게 하고, 그는 진실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절대로 궁핍으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말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나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나의 제자들은 나를 이해했고, 나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다. 사람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했고, 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은 가운데 내 뜻에 따라 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나의 교회는 완전히 나의 생각대로 세워졌다. 그러나 열심이 지나친 나의 대변자들에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단지 혼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일을 이웃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었고, 외적인 행동이 이와 결부되었다. 초기에는 실제 사람들이 영으로 이 일을 행했고, 내 뜻과 내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대해 진지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했고, 이런 변화와 함께 내 교회의 본질도 변했다.

가장 깊은 내적인 체험이 되어야 할 일이 외적인 일이 되었고, 외적인 의식이 우선이 되었고, 영적인 친교의 단순한 과정이, 나와 연합과 나의 말을 직접 받는 일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이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영을 통한 나의 직접적인 역사를 약속했을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된 나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로 먹일 것에 대해 알려주었을 지라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까지 깊은 영적 의미를 잃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말의 단순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착각 가운데 단순한 설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깨닫게 될 것

이고, 진리가 그를 깨우쳐 줄 것이다. 그는 나 자신과 연결을 확립하기 위해 추구할 것이고, 내 손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육체의 부활.

B.D. No. 6000

1954년 7월 13일

진리를 향한 의지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지식을 보장한다. 진리 안에 서기 원하는 너희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받고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기 원하면 항상 축복을 받는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의심의 원인이 되는 것. 내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빛이 있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에 관한 교리. 인간이 이해하기 원하는 것처럼 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모든 말의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이미 영적 지식에 조금 뚫고 들어갔을 때 쓸모 없게 된다. 내가 말한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읽으려는 의미는 진실로 내 말씀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말씀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나 자신에게 이성을 구하는 사람, 그러므로 진리를 꿰뚫으려는 사람은 곧 말씀의 영적 의미를 가볍고 분명하게 깨닫고 편지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부활." 너희에게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과 동의어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은 "육체로 걷는"와 같은 의미이다. "너희의 혼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한, "생명"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너희에게 아직 이상하다면. 지속적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걸형체에 머무르는 일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통해 이 걸형체를 잃어 버리고 또한 삼자 분열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몸, 혼, 영. 그들에게는 육체, "육체"만이 있고, 그 죽음과 함께 "생명"이라는 용어는 소멸된다. 그들을 위한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그들의 물리적 걸형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일은 어려운 교훈이다. 인간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육체의 부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 부활에 동참한다면, 축복이 될 수 있다. 저세상에서 믿는다.

이 믿음으로 그는 또한 자신의 성품을 바꾸고, 이 변화는 깨어남으로 이어지고, 내 영으로 빛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영적 의미를 파악한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 상태에서 발생한다. 어두움을 벗어나 빛 속으로 그러므로 처음으로 밤의 어두움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일은 일어나고 스스로 드러난다. 낡기 위해 살아난다.

죽은 상태에서는 증언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삶에서 일어난 일, 너희가 이 땅에서 육체로 걸었을 때 이제 나타나고 자신을 드러내며 너희를 증언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새 생명을 위해 새로 입히기 위해 물질적인 육체가 먼지에서 다시 떠오르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혼을 위한 썩기 쉬운 걸형체 일뿐이다. 그일은 썩지 않고 죽을 수 없고, 땅에서 헤어질 때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일은 아직 너머 나라에서 생명의

로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아직 부활할 수 있다. 그녀가 이제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취 하셨고 이 육체도 이 땅의 사망을 당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의 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너희에게 증언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의 말의 진실의 표시로 그의 몸을 키웠다. 그러나 그일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 었다. 그의 몸은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혼은 영적인 옷을 입고 이 땅의 육체에서 모든 영적 존재를 제거했다. 이일은 이미 그의 생사를 통해 완전히 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영적 물질이기도한 육체의 물질적 물질은 이미 이 땅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여 혼과 합류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눈에 띄게 된다. 완전한 영은 땅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 갔을 때 너희는 부활 후에도 육신을 갖게 될 것이다.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다. 이일은 육신대로 만들어 질 것이다.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육체로 죄를 지었다면, 너희의 혼은 그것을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혼은 다시는 무거운이 땅의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일은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짧은 땅 시간 동안만 머물렀던 것이다. 물질적 창조 의미와 목적, 이 창조물을 통한 타락한 영적 성장에 대해 아는 사람은 나에게 성장할 목적으로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무의미한다. 그러나 너희가 "육체" 의 부활에 대해 절대적으로 말하기 원하면, 내 말씀이 떠오를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도 너희를 증언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나는 육신이 된 말씀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 모두가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할 때 내 말 자체가 너희를 위한 심판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육체가 부활 될 것이다. 그일은 음식으로 너희에게 제공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너희는 배고픈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희 자신이 강해지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설명은 또한 진리와 일치하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그가 너희를 위해 "육체"가 된 그에게 자신을 먹이고 물을 주도록함으로써 이 땅에서 육체로 너희의 삶을 사용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때문. 비록 인간이 아직 영적 지식에 침투하지 않았더라도 참 지혜는 모든 설명에서 너희를 향해 빛날 것이다.

너희가 깨어난 영이라면 너희는 자원하여 받아드릴 것이다. 내 말씀의 잘못된 해석은 너희에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또한 깨워야 한다. 왜냐면 이 잘못된 해석은 내 대적자, 그의 목표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동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향한 모든 믿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해석은 또한 인간과 내 말씀을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영적 저조함을 증명한다. 편지가 죽는다. 단지 영만이 생명으로 깨어난다. 너희는 모두가 영을 요청하고 깨달은 생각을 위해기도하고 순수한 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습관이 된 관습과 말씀.

B.D. No. 7246

1959년 1월 5일

심장이 하는 말에 생명을 주지 않거나 또는 심장이 너희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는 말이나 또는 외적인 형식이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 너희 사람들을 위해 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너희는 항상 단지 이런 규정들과 요구들을 너희의 모든 심장으로 함께 하는지 또는 너희가 실제 자신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 성취시키는 단지 빈 형식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을 성취시키는 일이 너희에게 어떤 축복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너희를 한 걸음이라도 높은 것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항상 단지 행하지 않거나 또는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은 헛된 형식이나 말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관찰해보고 스스로 비판하여 너희의 모든 성품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간에 이에 관해 생각해보라. 그런 후 의식적으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 너희가 이제 말하거나 행하면, 항상 너희의 가장 깊은 느낌과 합당할 것이고 심장이 동참할 것이고 이로써 모든 것이 비로소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파고 들어오거나 또는 너희에게 전해진 잘못 된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의식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잘못 된 것을 거부하고 올바른 것을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실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선명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단지 말하고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실제 하나님이 너희 심장이 참여하지 않은 일에 따라 너희를 평가할 수 없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행한 것을 상급으로 너희에게 계산해줄 수 없음을 생각할 수 있다. 너희는 교육을 통해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 너희는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말을 따라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이런 말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한번 입장을 정한 너희의 말과 행동이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행동과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너희에게 단지 너희 혼이 성장하게 주어진 시간을 가볍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너희가 어린 시절부터 형식적인 관습을 계속해 성인이 되기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너희가 이성적으로 이에 관해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 생각해야 하다는 것이 선명하게 돼야만 한다.

그러나 이로서 유일하게 너희의 이성만으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 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한번 너희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 너희는 헛된 말이나 또는 죽은 행동으로 너희 자신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행동에 심장이 참여하면, 비로소 이 행동은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너희 삶을 의식적으로 산다. 그러면 비로소 하내 질문으로부터 다른 질문이 일어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지식이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면, 너희는 비로소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너희는 스스로 생명에 도달하게 자신을 도와야만 한다. 심장이 모든 일에 참여해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형식이나 죽은 말들을 경멸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성장할 것이고 너희 혼은 영원을 위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

B.D. No. 8688

1963년 11월 29일

인간의 생각은 세상 쪽으로 향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 항상 나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종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해준 영적으로 깊은 뜻이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한다. 내 가르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항상 말 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초기에는 올바르게 이해를 하였지만 영적인 의미보다 세상적인 의미를 중요시하고 마침내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말은 순수하게 보존이 되지 못했다. 내 말을 통해 영적인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 의식과 관습이 생겨 나게 되었다. 내 말은 치료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나의 말이 순수한 형태로 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성취할 경우에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너희에게 영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너희는 세상적인 의식으로 바꾸었다. 내가 너희 혼들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세상적인 형식으로 바꾸고 실행하며 너희는 이를 성사라고 부르고 이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양심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은혜의 보물을 모았다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형식이며 겉모양이 빛나는 것이며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이런 너희가 스스로 만들었고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전혀 요구하지 않은 형식에 매여 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거할 동안에 내가 말한 모든 내 말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절대로 외적인 형식으로 바뀌 치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혼의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는 외적인 관습에 만족해하고 있다.

세례 의식을 생각해 보라. 이것에 어떤 효과가 안타는지를.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실행한 것들을 영적인 성공으로 확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유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나 종교적인 모임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 스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의지로 자신이 속죄를 받게 해야 한다. 즉 단지 어린 아이에게 행해지는 세례식으로 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여기에 속해 있다.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나를 따르는 삶을 통해 사랑을 통해 생명

력이 있게 된 믿음으로만 다시 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이 내가 세운 교회의 특징이다.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식과 고해성사를 생각해 보라.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이런 외적인 것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희망하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가 나를 모셔드려서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나와 성찬을 나누는 것에서 내가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름 나를 기념해 행하라. "는 내 말을 너희가 깊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한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와 깊이 연합되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혼에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과정인데 너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에게 영적으로 요구한 것을 너희의 혼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는 세상적인 개념을 혼합시켜 어떤 것을 만들어 냈고 너희에게 이를 요구하면, 너희는 내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이를 지켰다.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줘야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설명을 영접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인간들이 세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계속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달을 수 없다.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내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너희에게 족쇄를 채운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영적인 의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오류가 생기는데 이 오류는 단지 너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너희 안에 빛이 비추어지고 너희가 오류 가운데 있으면 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인간이 세운 모든 계명과 성례식들은 어두운 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너희를 잘못 인도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순수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오직 순수한 진리만이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단지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다시 말해 내 사랑의 계명을 첫째로 지키는 자만이 이로 인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는 일.

B.D. No. 6733

1957년 1월 11일

나는 너희 모두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로써 너희의 생각이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한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빛을 주기 원한다. 이로써 어두움이 너희를 떠나게 한다. 나는 너희를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즉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단지 사랑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길에 서서 너희에게 내 선물을 전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를 지나친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의 영의 눈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없게 되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에게 손을 대고 그가 고난과 비참함을 겪게 한다. 이로써 그가 이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왜냐면 불행한 상태에 있고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자주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들이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뒤따르고 그들에게 힘과 빛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연약하고 비참하다고 느끼느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가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혼의 영적 위험과 빛과 힘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혼에게 비추는 올바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빛이 그의 혼에게 깨우침을 주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그는 또한 올바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지 못했다. 왜냐면 이웃들의 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자신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단지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기 원하고 열린 심장으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이 나 자신으로부터 전적인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는 단지 내 말에 열린 심장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장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 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분산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향하고 이런 사랑이 항상 단지 자신의 피조물들의 축복되지 못한 상태를 행복하고 축복된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런 믿음이 너희 안에 생기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내 대적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내 지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내 대적자가 너희

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도와 같은 정도로 너희 사람들이 나에게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영향력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너희에게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은 내 말씀의 형태로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또는 그가 조용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의 형태로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항상 또 다시 나타나 너희 심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비로 내가 영원에 영원한 기간동안 너희를 얻기 위해 싸워야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자원하여 심장과 귀를 나에게 열고 내 손에서 빛과 힘을 받기 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 사랑이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너희에게 향할 것이고 너희가 단지 축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혼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일. 세상적인 것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

B.D. No. 4535

1949년 1월 10일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육체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양식이 필요하고 육체보다 더 시급하게 양식이 필요한 너희 혼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의 세상의 행복을 위해 너무 많이 돌보고, 죽음의 시간에 모든 것이 쓸모 없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에 이미 너희 육체의 생명이 끝날 수 있고, 그러면 너희의 불안한 걱정이 완전히 쓸모가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혼에게 준 것을 혼은 간직한다. 혼이 간직한 것이 유일하게 저세상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되고, 너희가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오래 가지 않고, 너희가 이 땅의 삶 이후의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 시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영원을 위해 받아드릴 만한 운명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해주기 원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라. 자주 나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돌 볼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나의 돌봄과 도움을 받아들이기 원하면, 내가 너희의 염려를 넘겨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너희가 충족시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너희가 너희의 혼을 돌보기만 한다면, 너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혼은 굶주리고 피폐해지는 반면에 육체는 음식과 음료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제공받는다. 혼에게 양식을 주라. 혼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주라. 혼에게 나의 말씀을 먹이라. 왜냐하면 혼이 내 말씀을 굶주려 하기 때문이다. 혼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어,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숙하게 하고, 혼이 연약하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 가지 않게 하고, 혼 자신이 죽음의 시간에 강해져서 육체로부터 쉽게 분리되게 하고, 영원의 문을 통해 힘과 빛이 충만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라.

너희 자신이 혼에게 힘과 빛이 증가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너희는 너무 지나치게 육체와 육체의 소원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너희는 단지 혼의 갈망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혼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면 육체도 또한 육체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얻고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혼에게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여, 혼이 영의 나라에 합당하게 될 수 있게 하는 한가지가 필요하다.

아멘

주님의 식탁에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일.

B.D. No. 7427

1959년 10월 13일

너희는 많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 왜냐면 가뭄이 닥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랜 시간 동안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는 일이 너희에게 불가능하게 될 때가 오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각을 짧게라도 나에게 향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음성들을 듣기 위해 내적으로 귀를 기울 수 있는 일이 힘드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능력으로 채워 주는 일을 너희에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만으로도 진정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아직 가능한 동안에 너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한다. 나는 아직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때를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이런 좋은 조언을 너희에게 준다.

왜냐면 이 때는 너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능력을 단지 내 말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 혼이 떡과 포도주로 양분을 얻으면, 너희 혼은 혼을 위협하는 모든 공격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양식을 제공할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항상 내 자녀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있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할 준비가 되어있다. 왜냐면 나는 단지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그들을 인도해 그들이 내 식탁에서 언제든지 배부르게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귀를 나에게 자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 심장을 나에게 열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심장의 문을 넓게 열어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내 집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는 일은 항상 단지 너희가 서로 간에 사랑으로 섬길 때 가능하고 너희가 내 말을 영접하고 내 말대로 살 때 그러므로 너희가 양식과 음료를 섭취하여 너희 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가능하고 너희가 내 뜻대로 살 때 그러므로 단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가 흘러 나오는 샘을 파주면, 너희는 자주 너희 자신을 낮추어 샘에서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 너희 모두는 볼 수 있게 강해짐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제공하는 양식으로부터 얻은 이런 능력과 건강을 가지고 너희가 능력있게 건강하게 전진하면, 삶의 짐이 너희를 아주 짓누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샘으로 다가와 자리를 잡으라. 그래서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으라. 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샘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나눠 줘라. 그들에게 생명수를 길러 제공하라. 너희는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이 끝나기까지 항상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 전에 쉼을 얻고 자신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게 이끌어 주어라.

너희들 모두는 연약할 필요 없다. 너희는 항상 새로운 능력을 요구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새롭게 내 식탁에서 양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적게 주거나 또는 언젠가 너희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거부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항상 풍성하게 나누어 줄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이를 활용하고 항상 넘치게 요구해야 한다.

너희는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 양식은 항상 단지 너희에게 최선이 될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너희 혼을 위해 잔을 제공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순례자의 길을 위한 너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볍게 여기고 이 잔을 지나가지 말라.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파른 길이고 능력을 제공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이를 항상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사랑 자체가 너희에게 열어준 샘을 발견하면, 자리를 잡으라. 너희가 내 대적자의 술수로 인해 방해받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양식을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단지 조용하게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먹게하고 마시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내 권세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B.D. No. 7026

1958년 1월 27일

혼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일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왜냐면 그러면 단지 혼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 원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과 연결을 더 깊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은 항상 혼에게 영적인 재물을 준다. 왜냐면 이런 혼의 양식은 단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통해 혼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단지 사람들에게 양식과 음료를 약속한 하나님 자신에게 자원해 굶주림과 굶주림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나 또는 아름다운 말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내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심장을 여는 것과 같다.

왜냐면 그의 말은 살이요, 피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혼에게 올바른 양식이고 그의 말은 그가 직접 사람의 심장에 비취주는 사랑의 비추임이기 때문이다. 혼은 이 말씀을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음료로 느낀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공돼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은 혼에게 영적인 성장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전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람들의 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 전에 먼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가 설교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로써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지나게 하는 설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단지 문자를 말한 것뿐이고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말로 이해하거나 또는 단지 설교한 말로 이해할 뿐, 말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비로소 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혼에게 능력을 주고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하는 양식으로 혼에게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하나님과 연결은 의무적으로나 또는 형식으로 절대로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일이 축복이 되려면, 사람들 내면에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진정한 진지함은 어느 때나 모든 곳에서 사람을 채울 수 있다. 그는 항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의 식탁으로부터 분배되는 선물인 능력의 흐름이 그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각으로 자신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런 생각은 사랑으로 더욱 더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그와 대화 하고 혼이 필요한 것을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이런 유익이 중단될 필요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로써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가운데 그의 말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말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은 성장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양식을 충만하게 얻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계속하여 양식과 음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이 "받아먹고 받아 마시라. 이를 나를 기념해 행하라.“ 고 약속한 것처럼 계속하여 주님의 식탁에서 활기를 얻고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일.

B.D. No. 7940

1961년 7월 11일

나는 너희의 모든 길에서 너희의 동행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 곁에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조언을 해주고 너희에

게 내 뜻을 알려 주기 원한다. 너희가 이런 내 뜻을 성취시키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나와 연합이 되어 이제 자유와 빛과 능력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의 동행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를 내 대적자부터 지킬 수 있다. 대적자는 너희를 공격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격은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통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와 연합이 되어 있어 나 자신이 너희들 곁에 함께 가게 만들지 않으면,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고 영의 세계에서 너희의 혼을 얻기 위한 싸움이 항상 계속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계속하여 너희 혼을 얻기 위해 빛이 충만한 세계와 그리고 어두운 세계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세력은 자신을 위해 너희를 얻기를 원한다. 너희 자신이 어떠한 세력이 너희에 대한 승리를 할지 마지막 결정을 해주게 된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어떠한 영역에서 거하기를 원할지 정한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를 향할지 또는 나를 멀리하지 정할 수 있다. 진실로 단지 짧은 생각 만으로 너희가 나를 너희의 편으로 부르는 일이 가능하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 대적자와 그의 돕는 자의 계속되는 영향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 옆에서 함께 갈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은 축복될 것이다. 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의식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 인지에 관한 일이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너희는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게 된 너희의 이 땅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게 강요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단지 사랑이 충만한 말을 통해 너희를 나에게 이끌려고 시도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고 너희의 생각에 끼어 들 수 있고 너희의 삶에 운명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나타내는 효과를 너희 자신에게 맡겨 두어야만 한다. 너희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스스로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떠나지 않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영원 가운데 처할 너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종말이 가까이에 있다. 너희 모두는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나에 대한 자세에 따라 이제 너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내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라고 권한다.

바로 이 종말의 때가 나로 하여금 항상 같은 내 뜻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전해주게 만든다. 내 뜻은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이 사랑인 나와 가장 확실하게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러라.

너희는 나를 너희에게 이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긴밀한 기도는 마찬가지로 자녀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고 항상 내 뜻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내 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든다.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었다면, 너희는 더 이상은 어떤 것도 내 대적자도 다가오는 종말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고 내가 육체적인 영적인 위험 가운데 보호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드리고 너희의 의지를 내 의지 아래 두고 너희의 생각을 자주 영적인 영역으로 향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내 사랑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의 삶의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 옆에 함께 갈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버림받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손을 잡고 가게 되어 아버지의 나라의 집으로 돌아 가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

B.D. No. 8874

1964년 10월 25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에 너희를 달아버린 것에 대해 이렇게 큰 은혜를 그냥 지나쳐 버린 것에 대해 얼마나 쓰라리게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 혼이다. 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속자 예수그리스도를 찾을 때까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 은혜를 구할 때까지 끝없는 시간이 흘러 갈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너희를 위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를 정해진 곳으로 인도하려고 모든 것을 시도하는 내 끝없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 너희 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너희는 인생을 보내고 있다. 너희는 항상 세상과 세상의 기쁨만을 본다. 너희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사후에도 계속 생존하는 혼을 믿지 않는다. 이 때문에 너희는 책임감이 없이 살고 있다. 너희가 단지 신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창조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너희에게 떠올랐을 터인데 너희는 이 기적을 보지 못한다. 기적은 너희 주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단지 너희가 보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적으로 볼 수 있었다. 너희가 단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너희는 나 자신을 모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너희에게 생소한 것이 되었고 너희는 항상 단지 세상만을 세상과 관련 된 것들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 준 모든 기회를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이를 지나쳐버린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하나의 빛 줄기를 발견하면, 너희가 내 생명의 기쁨을 찾아 낼 수 있으면, 너희가 이로서 아주 행복하게 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이 은혜는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너희는 마찬가지로 빛 줄기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는 너희가 무엇을 지나쳐 버렸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쓰게 후회할 것이다.

단지 너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는 내 의지를 항상 알려주는 내 말은 진실로 종말 전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에게 진지하게 이 사랑의 계명이 전해질 때 너희가 항상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격려하며 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내 종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나 자신이 사랑의 계명을 가장 중요시하게 전하는 그들을 통해 내가 말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너희는 더 계속되는 은혜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는 내 은혜의 분량은 한 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단지 온전하게 되게 돕는 것이다. 너희 안에 쇠하지 않은 혼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이 혼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너희의 혼과 대화를 한다.

나는 혼에게 혼의 성장을 위해 건강해지게 처음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때 그의 운명이었던 연약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양분을 준다. 내 스스로 혼에게 양식을 먹이고 마시게 하면은 너희는 진실로 혼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고 환하게 비추이는 빛 가운데 저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너희 들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혼이 복되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혼이 이 말씀에 따르고 생명을 소원하게 되게 하라. 나로부터 대화 요청이 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 말을 전한다. 나는 모든 이런 소망에 응답한다. 나는 모든 구하는 것을 듣고 응답한다. 이 구하는 것이 너희가 단지 내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혼에게 필요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특별히 들어준다. 너희에게서 다시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혼을 쾌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양식과 포도주이다.

모든 사람이 한번은 나로부터 대화 시도를 받는다. 모든 사람 안에서 한번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너희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답을 구할 때 너희에게 답변이 주어 지게 된다. 왜냐면 나는 많은 방법과 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도 질문하는 생각을 헛되이 끝없는 세계로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에 주의하고 거절하지만 않으면 된다. 나는 혼의 소원을 만족시킨다.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쳐버린 자는 한때 쓰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사용하지 않은 기회를 기억하며 깨닫는 시간이 그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하지 않고 놓친 것을 추후에 할 수 없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모두 내게로 오라."

B.D. No. 5852

1954년 1월 12일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모든 필요가 생기면,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음 약속을 주었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전적인 믿음으로 내 약속을 생각하면, 너희는 헛되이 나에게 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유일하게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나는 또한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자주 내 도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부름이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드러지면, 나에게 드리는 이런 기도가 도달하지 못한 채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를 억압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이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나 너희 혼이 구원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으라. 이런 고난의 결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한 연결이 이미 너희의 혼에 유익 된다. 왜냐면 혼이 기도를 통해 나를 고백하고, 이제 혼의 믿음에 따라 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문제로도 너희를 짓눌리게 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에게 언제든지 세상 문제가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보장한 한 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적 어려움에 처하고, 너희 혼을 내가 도와 주기를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말을 아주 자원하여 듣고, 영적인 요청을 성취시키지 않은 채로 남겨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너희의 혼이 어두움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너희에게 빛이 부족하고,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이 부족하고, 너희가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 너희가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부르는 모든 부름은 즉각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죽음과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내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내가 너희 혼을 위험 가운데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침잠하는 가운데 내 이름을 말하고, 이로써 세상의 구원자인 나를 믿는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면, 너희는 내 이름에 들어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인간을 위해 길을 갔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모든 고통과 위험으로 쓰러질 위협에 처하면, 너희의 모든 고통과 위험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도움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쾌활하게 하리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 권세는 무한하고,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내 사랑은 그들의 위험 가운데 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전제조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됨

B.D. No. 7258

1959년 1월 17일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너희 내면 깊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영적인 생각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마음을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비우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로써 마음이 이제는 순수한 영적인 생각의 흐름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근원 된 사고가 마음을 적게 짓누를수록 내 음성은 더욱 더 분명 할 것이다. 마음이 온전히 비워지면 내 영의 강물이 거침 없이 너희 안에 흐르는 것처럼 너희가 실제 들은 말과 같은 직접적인 말로서 느낄 것이다. 세상 생각과 애써 싸울수록 내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이다. 신뢰가 넘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방해하기 위해 내 원수의 조종 하에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외적 세계와 꾸준한 투쟁을 필요로 한다.

너희는 내 대적자 들에게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에서 오는 모든 생각들을 거절함으로써 그리고 생각으로 나에게 이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 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이를 물리칠 수 있다. 너희의 의도가 고려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한 중요한 의미가 된 이들, 그리고 나를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로 깨닫고 그들을 그의 자녀 삼으려고 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하나님임을 깨달은 자 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일단 이들이 한번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세상은 더 이상 이들을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직접적인 말이 그에게 빛을 선물하고 그는 이 빛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대항해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아직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은 여러 모로 영향력을 미치려 하기 때문이며 내 대적자는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친밀한 대화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그의 관계성을 친밀하게 만들고 너희가 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소리는 무시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인간의 의지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그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 하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진 선물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할 것이다. 왜냐면 내 말이야말로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내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 하고 가장 완벽하신 분과 이런 친밀한 교류를 함으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과 너희가 음성을 듣고 받아 적음으로 음성을 듣는 다는 증거를 갖는 것은 너 자신에게 달

려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명상하라. 내가 너희에게 저 높은 곳으로부터 말하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해하고 또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소유하기 원하시는 너의 아버지 음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을 건다.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와서 너희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말을 통해 도달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견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항상 반복해서 나와서 긴밀한 관계성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세상의 표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저 멀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적인 생각은 물리치고 너의 고요한 가운데 너의 심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아주 분명하게 내 음성을 듣게 된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내가 약속한 "내가 내 자녀에게 영으로 올 것이며 그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는 말대로 나를 찾으려 하고 나에게서 들으려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즉 내 자신을 나타낸 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멘

의식적으로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일. 영의 음성.

B.D. No. 3612

1945년 11월 24일

스스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영적인 성장을 크게 돕는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영의 나라로부터 직접 힘을 받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와 즉 하나님과 접촉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 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 또는 영의 음성을 통해 자신을 알려준다는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영의 음성은 단지 영적인 선물을 받을 정도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원천이 열려, 쾌활하게 해주는 물을 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제공하는, 그의 성장을 지원해야만 하는 선물이 그에게 제공된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엄청나게 부유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는 영의 나라로부터 나온, 쇠하지 않는, 사람이 영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영의 나라에서 자신의 행복과 위험 가운데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의 구속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을 얻는다.

사람이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는 영적인 부유함은 아주 광범위하여, 그가 이의 모든 충만함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그는 영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게 축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부유한 정도가 그가 하는 일과 그의 축복의 정도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는 자유의지로 자신을 영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일했고,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축복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사람을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이 없는 지식을 전해주고, 그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스스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절대로 제공할 수 없

다. 왜냐면 그에게 영적인 부를 주는 일은 믿음의 강요를 의미하고, 그의 의지에 반하여 혼을 성장을 시켜주는 일이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내면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통해 알려 준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의 믿음과 그의 영적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그를 가르친다. 왜냐면 기도를 통한 또는 하나님께 향한 생각을 통한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은 영의 나라로부터 오는 능력의 흐름에 심장을 여는 일이고, 그러면 사람은 항상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단지 영의 역사를 믿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일이 받을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영의 음성이 그에게 알려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단지 적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도 단지 적게 나타난다. 인류가 언제든지 자신을 쾌활하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의 공급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고, 같은 성장단계에 머문다. 그러나 영의 능력은 단지 영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로 이뤄져야만 하는, 영의 나라와 이 땅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의지가 없는 곳에서 인류는 무능력하고, 혼은 영적인 위험에 빠져, 굶주리고, 흔들을 도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자신을 영의 나라와 이 땅의 중계자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도구로 여기고, 이웃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을 활용한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측량할 수 없게 흘러간다. 영원한 생명의 샘을 지나가지 않고, 그들의 삶의 길에서 자신을 쾌활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는 이 샘의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이런 그릇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원천수가 부어진다. 그들에게 위를 향한 길은 쉽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귀하고, 선물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생각의 형태로.

B.D. No. 5469

1952년 8월 23일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너희에게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언제든지 설명해준다. 너희는 단지 스스로 나와 연결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내 음성은 항상 너희가 들을 수 있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단지 주의를 기울이면, 너희에게 내가 전해주려는 내용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는 대로 너희 생각이 느낄 수 있게 형성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한가지를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나를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 나와 대화하거나

또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미 내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는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모든 생각을 알고, 너희에게 또한 답변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내 답변을 기다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깊어 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단지 희귀하게 사람들에게 그가 그의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 내 선명한 대답을 깨달을 수 있게 계시해줄 수 있다. 너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는 한 마디도 헛되지 않고, 나는 어떤 한 마디도 답변을 안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혼은 아주 자주 혼 자신을 가장 깊게 행복하게 해주었을 것을 지나쳐버린다. 너희는 아직 영적인 귀를 훈련시키지 않았고 그러므로 내 사랑의 응답을 듣지 못한다. 긴밀한 기도를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루는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갈망하는 내 음성을 너희가 이해하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귀를 훈련시켜야만 한다. 이는 너희 모두가 해야 할 과제이고, 이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아주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왜냐면 나와 긴밀하게 단 둘이 대화를 하는 너희 모두에게 예외가 없이 해당되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진실로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항상 단지 너희의 느낌이나 생각을 통해 느끼는 내 음성을 통해 많은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음성은 너희에게 내적인 평안과 보호받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로 끊임없이 모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 받고, 강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영으로, 진리 가운데 나에게 기도하면, 기도 후에 나를 향한 생각으로 기다리면, 너희는 내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 혼은 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나를 부르고, 나와 긴밀하게 단 둘이 대화를 하는 모두에게 낮아져 다가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진리 안에서 생각으로 가르침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 조건이다.

B.D. No. 2219

1942년 1월 22일

영원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영적인 질문들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책임을 맡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그들이 능력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흐르게 해줄 수 없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영적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빛과 능력을 전하는 존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흐르게 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음으로, 전 세계가 이 지식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첫번째 조건은 그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관자요, 넘치게 지혜롭고, 선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일이다. 사랑이고, 지혜이며,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가 영원한 창조주와 관계성을 맺게 하고, 동시에 기꺼이 주려는 영적존재들과 관계를 갖게 한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받아, 전하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에서 온전한 상태 가운데 머물도록 허용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존재들은 꾸준히 이 땅의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얻기 위해 시도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는 생각을 위로 올리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존재들은 답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질문을 하는 일이 그들에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돌리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먼저 질문할 때, 영적인 존재들이 생각을 통해, 그에게 답변해주는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심장을 연다. 그러면 비로소 그에게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 하나님이 조건으로 제시한 연결을 비로소 이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만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만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해주기 원하는 것이다. 이는 아주 큰 은혜이고, 이런 은혜를 의식적으로 요청해야 만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질문하는 생각을 통해 창조주가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만 하고, 창조주가 그의 지혜의 능력으로 자신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그의 사랑의 능력으로 대답해주기를 원하는 분으로 영접해야 만한다. 그는 이렇게 영접한 하나님께 겸손하게 설명을, 지식과 진리를 구해야 만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심장을 헛되이 열지 않게 된다.

그는 이제 저 세상의 알고 있는 존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존재들은 그가 헛되이 부탁하게 만들지 않는다. 존재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눈다. 그들은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는 일이 그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는 것은 가장 순수한 진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질문하는 생각으로 진리를 향한 소원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다름아닌 가장 순수한 진리만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 안에서 울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

B.D. No. 4313

1948년 5월 26일

이 땅의 삶에서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순간은 울리는 음성을 듣는 일이다. 그가 내 사랑의 표현을, 마치 실제 말하듯, 그 자신의 심장에서 듣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나의 가까이함을 밀려오는 빛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이 빛은 심장을 채우고, 사람의 감각도 인지할 수 있다. 사람의 혼이 성숙한 정도에 따라 어떻게 내적 음성을 듣는지가 달라진다. 그의 혼이 이미 꽤 성숙했다면, 근심이 없이 놀라운 기쁨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덜 성숙했다면, 아직 내적 장애물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는 어느 정도 혼의 성숙을 이루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빛과 힘이 직접 전달되는 과정이다. 그가 나와 그토록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나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는 나를 이해한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혼에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으로 인해 모든 세상과 관련된 일을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내 사랑의 힘을 항상 억제해야 한다. 그 결과 나와 아주 가까워서, 내가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나를 드러내는 시간은 항상 단지 짧은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세에 나를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할 이 땅의 나의 일꾼이 필요하고, 나는 그들이 신실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일하므로, 그들 심장에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도록, 나를 그들에게 계시해주는 일로 보상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더욱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도록 격려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 무조건 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이 전에 이미 영의 음성을 들었고, 이를 나의 음성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비로소 음성을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다. 왜냐면 울리는 음성이 절대로 그들이 믿도록 강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의 음성을 듣는 일은 강한 믿음의 절정이며, 이 땅의 삶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왜냐면 이는 사람들을 한량없이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한 생각이 모든 종류의 세상 고난과 궁핍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복된 삶과 그의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강한 믿음의 힘을 주어, 사람들 사이의 그의 사역은 아주 축복되고, 그가 시작한 모든 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의 이웃 사람들이 실제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자신 안에서 울리는 음성으로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이로써 나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나의 일꾼들의 사랑과 신실함에 보상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이 땅에서 이미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B.D. No. 8128

1962년 3월 18일

너희가 영으로 진리 안에서 나와 연결을 이루면, 나는 너희에게 임재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나를 아직 항상 멀리에서 구한다. 자녀로서 자신을 나에게 헌신하는 그러므로 나와 올바른 관계를 이룬 사람은 단지 소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그들은 아주 권세가 충만한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 존재를 자신들로부터 끝 없이 멀리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연결을 되길 원함을 그들 스스로 단지 이 연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왜냐면 그들 자신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므로 그들 자신이 다시 나를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내적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 영으로 진리로 나와 단 둘이 대화를 하거나 심장에서 나오는 나를 내적으로 부르는 능력이 없다. 그들은 단지 내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가 비록 듣지만 성취시켜 줄 수 없는 배워서 익힌 기도를 사용한다.

왜냐면 나는 영으로 진리 안에서 부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나를 소유하게 하는 나를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그리고 그에게 임재할 수 있게 하는 나에게 드리는 내적인 생각을 원한다.

이런 축복된 내적인 연결을 이미 이룬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이들은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나를 임재하게 할 수 있어 그의 성장 정도가 허용을 하면, 내가 그에게 생각을 통해 또는 들리게 말할 수 있다.

너희는 단지 내 임재를 소원하고 허용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임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깨끗한 심장을 필요하고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로 만든 깨끗해진 심장에만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 스스로 연결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삶의 방식은 사랑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믿음은 사랑을 통해 비로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혀 없다. 사랑은 사람들 사이게 식었다. 그러므로 나를 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연결을 시키게 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찾아보기가 단지 희귀하게 되었다.

왜냐면 사랑은 이미 나와 연결이다. 사랑을 행함을 통해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나로 하여금 임재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만이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한다. 왜냐면 심장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는 곳에는 이미 내적으로 낮은 나를 목표로 하는 재촉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를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할 것이다. 왜냐면 그 안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과 이제 임재할 수 있는 나와 연결을 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임재하면,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나는 그의 생각을 인도할 수 있다.

나는 그에게 그가 단지 나 자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각의 부유함을 제공할 수 있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는 항상 내 임재가 요구 된다.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나 자신이 그에게 임재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 사랑이 없는 삶을 통해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사람들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 어두운 영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직접 그들에게 역사할 수 없게 만든다. 왜냐면 그들은 이런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만약이 그들이 그와 연결을 구하면, 그들을 자녀로서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한 분 하나님을 믿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 안에 믿음을 비로소 생명으로 깨어나게 했을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주 큰 위험이 그들에게 닥쳐서 그들이 자신을 창조한 하늘과 땅의 전능한 창조주를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런 기도가 심장에서 나오면 나는 이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나만이 각 사람의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 나만이 세상적인 도움이 그에게 축복이 될지 또는 이 땅에서 나를 더 이상 찾지 못해서 저세상으로 일찍이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이 전달됨.

B.D. No. 3596
1945년 11월 7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느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왜냐면 말씀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나의 임재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내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느낀다. 나 자신이 영이고, 물질의 형태에 묶여 있지 않고,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힘과 빛이고, 그가 가진 의지와 그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존재라고 해야만 하고, 사랑과 지혜로 역사하고, 그러므로 무한을 향해 빛과 능력을 발산한다.

힘과 빛의 원래 초기의 성분을 가진 힘과 빛을 받을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이 빛과 힘에게 형체를 부여했다. 이 형체가 나의 말씀이다. 너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체가 빛과 능력인 영은 단지 빛과 능력으로부터 나온 형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발산인 말씀 안에 빛과 능력이 담겨 있고, 나의 말씀이 내가 가까이에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와 동시에 빛과 능력을 영접하기 원하는 너희에게 나의 영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비록 내가 볼 수 없게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가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달을 때, 너희는 나의 임재에 대한 증거를 너희 손에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너희가 나와 나의 임재를 갈망할 때, 너희는 말을 중단없이 받기 때문이다. 말씀 안의 나를 깨닫는 사람은 나의 임재 때문에 깊은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염려도 그를 떠난다. 왜냐면 육체와 혼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그를 도우려는 존재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능력과 축복을 주는 것이다.

왜냐면 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서 거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심장의 문을 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한번 나에게 향했고, 말씀 안의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말씀은 내가 표현하는 수단인 형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형체를 통해 영원 전부터 온전한 영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나는 너희 가까이 있다. 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거나 또는 받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의 말을 받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갈망함을 통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1945년 11월 7일)

너희에게 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가정 안전한 증거임을 너희에게 줘야만 한다. 나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심장이 나에게 다가가도록 그에게 재촉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의 사랑의 표현된 후에, 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난 후에, 이런 소원을 갖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영적인 격려를 통해 위로를 받고, 강해지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영적인 분야에 지식을 더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나에게 대한 감사함으로 나를 생각하고,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는 나와 단둘이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할 수 있고, 생각으로 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의 감각이 항상 영적인 방향을 향해만 한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찾게 할 것이고, 그의 부름이 나를 그에게 인도한다.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나를 알려줄 것이다. 왜냐면 다른 방식으로는 그가 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영에게 직접 역사하거나, 직접 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위임으로 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영의 세계에서 생각을 통해 그에게 전하거나, 내가 이 땅에 전해준 말을 읽음으로 받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 받는다. 나 자신이 나에게 요청하는 심장을 항상 받아드릴 것이고, 스스로 나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그러므로 진실된 의도로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말하도록 허용하는 사람 곁에 나 자신이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하늘의 양식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줄 것이다. 그가 나 자신을 먹고 마시기 위해 내적으로 깊이 나와 연결되어야만 한다. 나 자신이 말씀인 것을 깊게 믿고, 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의 심장으로 나를 영접한다. 나는 나의 임재로 그를 항상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나의 약속은 말 그대로 성취된다. 왜냐면 나의 말씀은 진리이고, 모든 영원까지 진리로 남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곳."

B.D. No. 5056

1951년 2월 7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 너희가 너희 심장으로 나를 부르고, 나때문에 모이고, 너희의 대화의 대상을 나로 삼으면, 너희 자신이 내 임재를 너희에게 끌어드린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의 대화에 개입을 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힘을 채워주고, 너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임재를 확신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두움 편에서 너희를 억압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 왜냐면 내 빛이 비추는 곳에서 너희에게 해를 끼치기 원하는 어두움의 영적인 존재들이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사악한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영의 나라에서 오는 빛의 발산에 너희 자신을 연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내 말씀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느끼고, 내 말씀의 힘과 역사를 느끼게 되면, 너희는 또한 내 말씀을 영접할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 가운데 머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 은혜의 선물을 나눠준다. 너희의 혼은 기뻐해야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혼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 모두는 주님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나는 나눠주고 너희는 양식과 포도주를 받고, 내 살과 피를 받는다. 너희는 내가 만찬에 초대할 내 손님이고, 자원하여 내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혼에게 귀한 활력을 주는 내 말씀인 하늘의 선물을 넘치게 제공받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는 절대로 굶주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아버지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넘치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너희는 어린 자녀처럼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달려오고, 내 심장은 너희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알리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간다. 나는 사랑하는 심장이 부르는 모든 부름과 나를 향한 모든 소망을 성취시켜 준다. (1951년 2월 7일) 왜냐면 내가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머무는 모임에 내가 들어가도록 허용하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이, 입으로 말하거나 또는 심장으로 말하는 곳이 육체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없을 지라도 내가 기꺼이 머무는 곳이다. 너희의 모든 생각이 나를 끌어드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임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모여서 내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 내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진다. 왜냐면 그들의 심장이 나의 신적인 힘에 대한 저항을 전혀 하지 않고, 이 힘이 그들의 혀를 풀어주고, 그들은 내 영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역사하는 곳에서 오류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에게 순종하면, 내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난다. 영적인 대화에 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대화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 서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들의 생각이 나에게 향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 이런 내 말씀을 너희는 진지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가 절대로 혼자 되지 않는다는 내가 주는 약속이 너희에게 언제든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전

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는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나는 또한 너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심장의 모든 요청을 알고, 이를 너희의 믿음에 따라 성취시켜주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한다. 내 임재를 믿는 믿음이 강할수록 너희가 위험에 처할 때, 내 도움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가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 임재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열고 내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 원할 때,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너희의 이웃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고 응답하거나 또는 내면으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직접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자신을 계시해주기를 원하고 항상 계시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찾지 못한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대로 사랑과 지혜의 말씀과 충고와 위로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다. 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나는 나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축복을 힘으로 느낄 것이다. 이 힘은 위로 향하려는 소원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향하려는 소원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원으로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한다.

B.D. No. 8514

1963년 5월 30일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 내 임재가 나타난다. 왜냐면 영을 통해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된 자만이 이런 영이 나타남을 영접할 수 있다. 왜냐면 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같고 아버지가 자녀 곁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일꾼들이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하면 이제 너희 사람들은 비록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일이 직접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인지 질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 너희는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내 말을 단지 읽을지라도 내가 다시 그들에게 임재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심장을 자유의지로 열 때 즉 나 자신이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할 때 비로소 그의 심장은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나로부터 대화 요청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말씀은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귀로만 듣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의 심장은 이를 영접하고 내 말씀으로 인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 영으로 충만하다. 왜냐면 그의 영의 불씨가 이미 생명으로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진실로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나와 연결시키는 너희 모든 사람은 비록 그들이 내 말을 직접 듣지는 않을지라도 나에게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내가 내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누가 내 말을 듣기를 갈망하

고 그의 심장에 말하게 허용하는지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라." 내 말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영이 비추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영이 그 안의 영의 불씨에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진리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내적으로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람은 내 대화 요청에 심장의 문을 닫는다. 사랑이 없는 모든 지식은 그에게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는 이를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빈말로 듣는다. 그는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거절할 것이다. 사랑이 바로 심장의 문의 열쇠이다. 내가 이제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내 말을 깨닫고 이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재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의 심장을 안다. 나는 사랑이 불타고 있어 내가 임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안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그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 자체이고 그러므로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 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임재 하는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확신이 내 말을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달은 너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서 임재 함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나와 연결을 이루었고 너희가 이 땅의 삶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아버지 음성으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씀을 전하는 내 포도원 농부의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제 너희가 손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깨닫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임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대화를 시도한다.

나는 항상 너희의 성장 정도와 사랑의 정도에 합당하게 너희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대화를 요청한다. 나는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영원한 진리인 나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으면, 이 땅의 내 일꾼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지는 나로부터 온 진리를 소유하게 된 너희 모두는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대화 요청을 받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심장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심장에 문을 열어주는 다시 말해 내 임재를 갈망하는 너희에게 내가 임재한 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가 내 입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항상 너희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너희는 너희 구원을 위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말은 효과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말은 너희 심장에 부어지는 절대로 효과가 없게 남을 수 없는 나로부터 온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나로부터 듣고자 하는 자세가 내 말을 받으려는 자세가 이미 너희 혼이 나에게 가는 길을 갔다는 성장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왜냐면 혼이 나 자신과 내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혼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제공해줄 수 있다. 혼은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빛과 능력과 자유를 다시 얻는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를 내 영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는 내 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격이다.

B.D. No. 5251

1951년 11월 6일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영을 통해 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사는 항상 너희 자신의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의지를 행할 때 너희 모두가 이런 은사를 받는다. 너희가 단지 사랑을 행하면, 너희 모두가 나 자신과 연결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에 임재하고, 내가 진실로 내 임재를 사람의 성격에 의존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사람의 나에 대한 관계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내 자녀로 만들 수 있다. 사랑이 나를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내 영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다.

너희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능력을 주기를 거부하지 않은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너희 자신이 이 능력을 성장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는 이 땅에서 너희 자신을 내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너희의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와 너희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정도에 따라 너희는 이 땅에서 구원 활동을 하도록 택함을 받는다. 왜냐면 너희가 내 영을 받기 위해 자신을 양육하는 정도로 너희가 내 영을 받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것을 다시 나눠줘야 한다.

하지만 영적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단지 그의 이웃에게 줄 수 있고, 소유하는 일은 다시 내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와 내 나라를 위한 포도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항상 나 자신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내 말씀이 나 자신에게서 받은 사람이 설득력이 있게 대변하는 것처럼 대변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설득력이 또한 성공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를 통해 폭 넓은 지식을 얻은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적격이다. 왜냐면 그는 지식을 단지 기계적으로 받아드린 것이 아니고, 진리와 함께 동시에 깨달을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이성을 통해 지식을 얻는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그의 영이 사람을 가르칠 때, 그가 비로소 지식을 깨닫게 된다.

내 영은 원하는 곳으로 향하고, 사람의 명성이나 위치나 성별에 관계 없이 가르친다. 내 영은 은혜를 흘려주기 위해 단지 자신을 영에게 열고 자원하여 사랑을 행하려는 심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내 영은 또한 그 사람이 말하도록 이끌고, 그러면 말하는 자가 사람 자신이 아니라 영이 분명하게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고, 그는 항상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내적인 충동을 따라야 하고, 주저함이 없이 말해야 한다.

종말의 때에 영적 위험이 아주 커서 내가 진실로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충분하게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는 일을 위해 모집하고 부른다. 나는 내 부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그의 일이 성공하는 곳으로 배치하기를 원한다. 나 자신이 그를 가르치고, 단지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면, 해야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준다. 그러면 그에게 다가간 사람이 내 말씀을 원하게 되고, 나는 진실로 모든 원하는 사람에게 내 말씀을 제공할 것이고, 그는 이 땅의 내 종인 너희에 의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믿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말씀은 내 능력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올바른 섬기는 종. 임명할 때 주시는 말씀. 영의 역사.

B.D. No. 8325

1962년 11월 10일

나를 믿고 너희 안의 내 영의 역사를 믿는 너희는 나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이 지식을 이웃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 왜냐면 너희는 이 지식을 단지 너희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의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진리 합당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 사이에서 단지 중보자로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오게 그들의 의지를 자극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 자신에 관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한다. 그들은 내 뜻과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알아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에게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처해 있는 귀환 과정에 관해 알아야 하고 이 과정을 가는 원인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모든 지식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이제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실패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원래 초기에 그들에게 정해진 바대로 축복에 도달할 수 있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준 지식을 전하는 과제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 아주 큰 축복이 따를 수 있다. 나 자신이 너희가 나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을 지원할 것이다. 왜냐면 이 일의 성공은 내가 나를 위해 얻기를 원하는 만약에 그들 스스로 원하면, 내 대적자가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만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의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혼들은 이미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성장 과정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면, 또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의 성장 과정을 연장시킬 수 있다. 나는 내 빛의 일꾼인 너희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전해주어서 너희가 진실로 영의 어두움 가운데 많은 빛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 (1962년 11월 10일)

너희가 나를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은혜의 보물을 이웃들도 얻기 위해 그들은 단지 심장과 귀를 열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항상 단지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와

혼에게 모든 능력을 주는 진정한 포도주를 나눠줘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첫 번째 제자들과 성찬을 나눌 때 그들에게 사명을 준 것과 같이 너희는 마찬가지로 내 진정한 제자들이다.

나는 실제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준 사명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이 말로 그들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임명했다는 것을 알았고 세상에 내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의 혼에 그들 스스로 나로부터 받은 그들 안의 내 영의 역사를 통해 계속하여 느끼는 내 말을 제공해 주는 자로 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즉 나는 이 제자들을 임명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런 사명을 위해 그들 스스로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파해야 하고 혼의 구원을 줄 수 없는 인간적인 영적인 내용을 전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 말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후계자들이 그들 안의 내 영의 역사를 통해 가르칠 능력을 가지고 있던 동안에는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 제자였고 이로써 나로부터 올바른 복음을 받은 첫 번째 제자들의 제자들이다. 만약에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광범위한 지식을 내면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식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내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면, 이런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여길 수 있고 내가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한 첫 번째 제자들의 후계자로 여길 수 있다.

선포하는 자가 영적인 지식을 전통에 따라 받아들인다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진실로 축복이 되게 역사할 수 있게 전하기 위해 이전에 선포하는 자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단지 영이 깨어난 내 말을 선포하는 자가 올바른 내 제자들의 후계자들이다.

그러나 직업으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이 지식으로 내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설교자들은 내 제자들의 후계자들이 아니다. 이런 일꾼은 합당하지 않은 일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 자신이 그들을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올바른 포도원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들 안에서 내 영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르심이 이웃들을 의해 이뤄질 수 없고 마찬가지로 내적인 부름이 없이 자기 스스로 직분에 들어선 사람에 의해 이뤄질 수 없고 이웃들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

선포하는 직분은 아주 책임이 큰 직분으로써 이를 위해 진실로 능력이 있어야만 하고 절대로 사람들의 의지나 또는 사람들의 행함으로 이런 직분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합당한 밝은 빛을 밝혀 주는 내 말을 전해주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기 전에 소유했던 깨달음의 상태에 다시 도달하게 해주는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 주었고 내가 내 영의 흐름을 부어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사랑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내

영의 역사를 약속해줄 수 있는 그릇을 선택했다. 왜냐면 나는 단지 이 땅에서 제한 된 시간 동안만 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나로부터 온 가장 순수한 진리가 사람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내 영의 역사를 허용하는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번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자신을 이 땅의 내 대리자로 내 첫 번째 제자들의 후계자로 주장하면서 그들 안에서 내 영의 역사를 알게 하는 선행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너희가 믿느냐?

이로써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을 내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쉽게 내 대적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항상 단지 나로부터 온 순수한 진리를 감추려고 한다. 그러므로 잘못 된 가르침 위에 잘못 된 가르침이 그들이 잘못 된 가르침으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관철될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영이 아직 역사할 수 없는 곳은 아직 어두운 곳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영이 비로소 사람 안에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내 영의 불씨는 사랑이고 사랑은 빛과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 안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인 하나님의 영의 불씨가 아버지의 영과 연결이 되면, 밝은 빛이 비추게 돼야만 한다. 그 안에 어떤 어두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왜냐면 오류는 발각이 되고 나 자신에 의해 진리로 수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순수한 진리만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길 원한다. 내 제자들과 함께한 내 마지막 성찬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라. 제자들은 가장 순수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동시에 내 구속사역과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왜냐면 단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내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말 가운데 이를 거론한다. 왜냐면 축복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임명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전적으로 의미가 없는 의식으로 연결시키는 동안에는 사람 가운데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다시 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순수한 진리인 내 말을 전하는 사명을 준다. 나는 나를 믿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내 영을 통해 내 말을 제자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

아멘

주의 만찬. 살과 피.

B.D. No. 4908

1950년 6월 3일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는다. 나는 너희가 그들의 혼의 양식과 내 말씀과 내 살과 내 피를 마찬가지로 갈망하는 이웃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손님들로 택했고, 이로써 너희가 나의 식탁에서 배가 부르게 했고, 너희가 이제 배고프고 주님의 식탁에서 식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게 했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내 식탁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

에게 그들의 혼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 원한다.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 하고, 나의 증으로써 그들에게 내 선물을 전해줘야 한다. 왜냐면 그들 자신이 아직 나와 직접 접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내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일은 길을 가는 가운데 너희가 그들에게 줘야 할 힘을 주지 않으면, 쓰러지게 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살과 피와 양식과 포도주와 생명력이 있는 내 말씀을 줘야 한다. 왜냐면 나는 영원으로부터 말씀이고,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피로 인류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심장으로 내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진실로 내 살을 먹은 것이다. 나의 말씀의 힘이 사람을 구원하는 피이다. 혼이 연약하고 성장을 위한 힘이 필요하다면, 쇠약해진 몸에 올바른 음식인 양식과 포도주를 혼도 섭취해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인, 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혼은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혼은 굶주릴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생명의 근원에서 자신을 쾌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혼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한 내 식탁에 진정한 손님이 될 것이다. 나는 증들을 보내 밖에 서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참여하기 원하고 내 손님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영접을 받게 될 것이고, 진정하게 강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사람들을 얻어야 하고 그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이로써 그들이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려는 소원을 갖게 하고, 축복되기 위해 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는 내 사랑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인색하게 선물을 주지 않고, 내가 아버지처럼 자신을 돌보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넘치게 제공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저녁 만찬에 초청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문을 여는 사람은 영원히 나의 손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 앞서 다가가, 내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이로써 나를 위한 장소를 준비해야 하고, 나 자신이 너희의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만찬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양식과 포도주를, 그들 자신 안에서 직접 듣거나 또는 나의 일꾼인 너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내 살과 피를 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자신의 심장의 문을 여는 모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이 너희의 사명이고, 나는 이런 사명을 성취시키도록 나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준다.

아멘

영을 부여주는 일. 영적인 성찬.

B.D. No. 7994

1961년 9월 17일

너희 자신을 항상 또 다시 내가 너희의 축복과 인류의 축복을 위해 내 영을 부여 줄 있는 그릇으로 대접으로 생각하라. 이 땅과 빛의 나라와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동안에는 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가능하다. 단지 어두움을 도피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빛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빛을 느끼지 못하고 빛에 감동을 받지 못한 채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길 원하지 않는 어두움을 향해 다시 갈 것이다. 그러나 빛의 원천은 열려 있고 여기에 항상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 되다고 평할 수 있다.

원천으로부터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길을 끝까지 계속 갈 수 있기 위해 그들은 단지 그릇을 활용하지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내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너희 사람들은 이제 모든 곳으로 생명수를 전할 수 있다.

너희는 이웃에게 빛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먼저 갈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영이 아직 역사할 수 없는 곳에서 올바른 지식이 없고 그들의 이 땅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살고 있어 이 땅의 삶을 헛되이 보내며 어두움 가운데 길 잃은 인류를 돕는 것을 통해 너희는 나를 올바른 섬기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단지 세상의 물질을 쌓아 두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로 하여금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보게 이제 내 뜻에 합당하게 그들의 삶을 살게 자극할 수 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너희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 자신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내 말을 전해준 것처럼 내 말을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일과 의지를 통해 내 순수한 말이 그들에게 전해져 사람들이 이 말을 변개되지 않은 상태로 듣거나 읽으면, 너희는 내가 기록을 통해 그들에게 말 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포도원의 올바른 일꾼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내 뜻을 수행하고 아직 이 땅에 퍼져 있는 어두움을 빛이 항상 더 많이 물리치게 하는데 기여한다. 너희 이웃들이 직접 음성을 듣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진실로 내 말씀의 능력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에 단지 나에게서 들으려는 의지 만이 요구 된다. 이웃들은 너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내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나 자신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너희의 말을 들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나 자신이 너희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게 하라.

너희의 의지를 드러서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되려고 하라. 그래서 내 영이 너희 안에 말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가장 밝은 빛이 이 땅에 비추고 이 영역 안으로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빛을 갈망하는 그러므로 내 영원한 사랑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게 될 혼들이 들어설 것이다. 이 과정이 영적인 성찬이다.

나에게 향한 모든 의지는 하나가 되고 내 말을 듣는다. 나는 내 말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말하기 위해 단지 열린 심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비추임을 자신 안에 영접하고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시키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되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베풀어 줄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영을 부어 줄 수 있기에 합당한 그릇을 필요로 한다. 너희 혼은 양식을 얻어야 한다. 너희 혼은 음식을 섭취하고 마셔야 한다. 너희 혼은 쾌활하게 되어 하고 항상 또 다시 힘을 얻어야 한다. 너희 혼은 이제 힘들이지 않고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한다.

왜냐면 너희 혼은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었고 내가 절대로 마르게 하지 않을 원천에서 항상 또 다시 쾌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영접할 준비되어 있는 그릇은 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게 나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와 내 영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지 안했을 것이다.

내 충만한 사랑은 아주 크다. 이 사랑은 자신을 나에게 열고 나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내가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진실로 부어 질 것이다. 나는 측량할 수 없게 베풀어 줄 것이다. 단지 양식과 음료를 갈망하는 사람은 넘치게 받을 것이다.

아멘

포도원 일을 하라는 자극.

B.D. No. 7561

1960년 3월 28일

너희는 내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내가 너희가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특별한 일을 알려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예고한 큰 환난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온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너희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영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그들의 실제적인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들의 과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나를 섬기기 원하는 너희는 이웃의 생각을 내 나라로 향하게 하는 일이 항상 너희의 임무가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단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단지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일은 순전히 세상적인 일이고 그들은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그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를 알려줘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원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전하게 한 아버지의 음성이 내 나라에서 울린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들은 이를 믿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특별한 과정을 언급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또 다시 영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기 위해 단지 자극해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의 심장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내 말씀을 영접하고 다시 전하도록 돌볼 것이다. 내 길은 놀라운 길이고 너희는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굶주린 혼들이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곳을 안다. 그들에게 양식은 내 순수한 말씀이다.

나는 혼들이 어디에서 내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지를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한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도록 섭리한다. 비록 너희가 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회가 소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는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 말씀은 내 힘으로 축복을 받았고 내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내 말씀이 사람의 심장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곳에서 혼이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혼은 힘을 느끼고 내 말씀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양식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생각이 너희가 혼이 자신을 쾌활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양분과 생명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관심해지지 말라. 왜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나라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내 나라에서 단지 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야 하고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줘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내 나라를 향해 갈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내 말씀을 듣도록 도와야 하고 내 말씀을 전하는 내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 내 선포자는 자신의 직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또 다시 위로부터 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 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유일한 너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포도원 일이 필요하다. 포도원 일이 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포도원 일을 하도록 권면한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할 일을 맡길 것이고 너희는 내 인도를 받을 것이고 너희의 생각과 의지는 내 지시를 받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항상 나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나라를 위해 성공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포도원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포도원 일에 적합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의지를 단지 나에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일이 필요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일을 맡길 것이고 이 일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자원하여 돕기 원하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내가 축복하고 이로써 더 많은 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이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나라를 추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B.D. No. 6129

1954년 12월 8일

저 세상에 있는 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왜냐면 그들이 아직 빛 가운데 서지 못했다면, 단지 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하는 혼들에게 긴급하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통해 빛과 능력을 받으면, 그들은 이제 빛과 능력을 줄 수 있다. 이 땅 뿐만 아니라 저세상에서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내 말씀이 단지 빛과 힘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

아직 나와 연결을 이루지 못했고 비록 영의 나라에서 선포될지라도 스스로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혼들과 연결을 너희 사람들이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혼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라.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할지라도 이런 혼들을 생각하라. 이런 혼들이 너희의 포도원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저세상에서 빛의 존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또한 빛의 존재들이 제공하기 원하는 것을 쉽게 영접하지 않으려는 그들을 도우라. 그들은 너희의 생각을 통해 너희들과 연결 된 것으로 느끼고 너희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한다.

너희는 이제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너희는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가르쳐 그들이 먼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이로써 영적인 친구들이 그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그들이 친구들과 그들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또한 조언을 영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혼에게 내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희귀하게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혼에게 상상할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을 갑작스럽게 이해하고 더 빠르게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연관관계를 찾기 때문이다. 왜냐면 온전하지 못한 혼에게 빛이 부족하고 이제 내 말씀으로부터 이 빛이 혼에게 비춰져 원하지 않는 혼이 전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말씀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이 거부하면, 혼에게 빛이 비추지 않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하던 모든 혼들을 생각하라. 그러나 또한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로써 그들이 남의 뜻을 잘 따르게 하고 그들이 너희 사랑을 느끼고 너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오게 하라. 이런 혼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라. 너희는 이런 일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사슬을 풀게 한다. 그들 모두를 너희에게 부르고 그들이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 왜냐면 그들은 끔찍한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아직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 영접해야만 하는 나 자신이 주는 하늘 양식을 통해 그들이 단지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양식이 없이는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없고 빛에 도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넘치게 제공하는 것을 이런 가난하고 불행한 혼들에게 나눠줘라.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또한 혼들을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 너희의 사랑이 나를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름.

B.D. No. 6308

1955년 7월 10일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내가 유혹하는 부름이 거의 그들의 귀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실제 내 부름을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이 내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 음성이 스쳐 지나가게 한다. 왜냐면 다른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고 그들이 이 소리에 자원하여 순종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귀를 닫고 내 음성은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 내 음성은 강요하지 않고 부르고 경고하고 가장 사랑이 충만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유혹하고 권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음성이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는 일에 성공하려면, 사람이 내 음성을 자원하여 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 질수록 내 음성의 효과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내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삶을 통해 나와 먼 거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거의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비록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설명해줄지라도 그들은 내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내 말씀은 단지 공허한 소리이고 그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기보다 그들을 훨씬 더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듣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내 빛의 전달자들을 그들과 만나게 하고 내 종들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말한다. 그러나 나는 가끔가다 놀라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얻고 이런 성공은 단지 희귀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비록 한 혼이라도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도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나를 포기한 사람은 나를 거의 다시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종말이 오기 전에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내 음성이 커질 것이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 음성은 이전에 조용하게 선포한 내용을 단지 확인시켜줄 것이다. 내 돌봄은 항상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먼 간격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짐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향한다. 나는 종말의 때까지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한번 의식적으로 내 음성을 듣게 만드는 일에 내가 성공하면, 내 말씀들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내 말씀들은 성공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자주 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빼앗지 않기 때문이다. 저항하지 않고 내 말씀을 듣기 위하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말씀에 큰 힘이 있게 되고 내 말씀은 사람을 더 이상 놓아주지 않게 된다. 그가 일찍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는 종말의 때 나에게 큰 두려움으로 나를 부를 것이다. 이런 부름이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의 부름을 듣고 그는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받는 일을 파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파문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파문을 받기 전에 나를 찾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종말이 오기 전에 그들을 불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이 끝없는 시간 동안 속박과 어둠 속에서 다시 고생해야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종말까지 짧은 은혜의 시간을 아직 활용해야 한다. 이 땅의 내 종들인 너희는 모든 구원받은 혼이 나에게 무한한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나는 존재가 고통을 받고 새로운 파문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내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활용해야 한다. 너희는 내 축복이 항상 너희와 너희가 시작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내가 말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면, 너희가 내 뜻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말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나와 떨어져 있고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순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일어나고 너희 안에서 일어난 내 역사를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들은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 너희에게 귀를 열 것이고 무언가가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계속하여 선포한 때가 되면,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있고 작은 식물이 자라 빛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아직 종말 전에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나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심장에 거처를 준비하라. 주의 만찬.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있다.”

B.D. No. 3676

1946년 2월 4일

 , 내가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 너희 심장의 문을 헛되이 두드리지 않게 하라. 심장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게 하라. 기쁜 심장으로 나를 환영하라. 너희 안에 내 거처를 준비하라. 너희는 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나 때문에 이웃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의 심장 안으로 나와 함께,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깨달았다면, 너희는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그리워하지 않고 나의 임재를 위해, 너희가 너희의 심장에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굶주리고 무기력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행복하게 해주는 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힘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너희 곁에 서서, 너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이 땅의 계곡을 더 이상 홀로 걷지 않고, 내가 한번 너희의 심장 안에 거처를 얻으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나를 맞이할 나의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는 나를 끊임없는 동반자로 얻는다.

내가 너희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고, 나의 말씀을 제공한다면, 너희의 의지가 단지 내가 들어가게 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러면 그의 의지가 적절한시기에 나에게 향했기 때문에, 의지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인도받는다. 너희는 나를 먼저 낯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후 나를 깨닫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너희는 나를 친구이자 형제로 만들고, 내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를 보고, 너희 자신을 나의 자녀로서 나와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너희가 끊임없이 사랑을 행함으로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너희와 나와 관계가 항상 더 긴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너희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면, 나를 너희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저항도 하지 말고, 나를 기쁜 심장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의 자원하는 의지를 통해 너희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문을 두드릴 때, 그의 집을 잠그는 사람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의 선물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 자신이 은혜의 선물에 자신을 담기 때문이고, 그는 또한 나에게 의해 절대로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부름을 흘려듣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나에게 열라. 이로써 너희 혼이 굶주리고 무기력하게 될 필요가 없게 하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주는 양식을 혼에게 제공하라. 나의 손님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줄 수 있게 하라. 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너희는 나의 양식의 힘이 필요하다. 내가 나의 살과 피로, 축복될 수 있기 위해 나의 말씀의 힘이 너희를 통해 흘러야만 하는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게 저녁 만찬을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너의 심장 안으로 나를 영접하라.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문을 두드릴 때, 나에게 문을 열라.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속이기 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너희를 얻지 못할 음식을 너희에게 줄 수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말씀은 알아볼 수 있다. 왜냐면 나의 말씀은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은 사랑 자신인 내가 제공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큰 영적 문제를 돕기 위해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임했다. 나를 그들의 심장 안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의 심장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 나는 그들의 심장 안에 거하기를 갈망한다. 너희는 나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고, 나의 경고에 주의 기울이라. 내가 임하면, 너희 심장의 문을 활짝 열어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언젠가 영원 가운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긴급하게 주의 만찬에 초대하는 일.

B.D. No. 6609

1956년 7월 30일

항상 내 식탁으로 나와 너희의 혼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으라.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스스로 양식을 섭취해야만 하고 내 사랑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쾌활하게 만들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해야만 하고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충분하게 받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항상 힘과 강하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너희의 혼이 강하게 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 식탁은 항상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직접 와야만 한다. 너희의 혼이 너희 자신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나라의 양식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가 혼에게 제공하는 것은 내 사랑의 힘이고 이 힘이 없으면 혼이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복은 끊임없이 내 사랑의 빛을 느끼는 일이고 느낄지라도 계속해서 내 사랑의 빛을 갈망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지나치게 배부르게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쾌활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고 너희가 나와서 유대를 항상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양식을 바로 활용하라. 이로써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고 너희의 축복이 손상되지 않게 되려면, 나눠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선물하는 식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 나는 너희와 모든 것을 공유하기 원한다. 내 손님들이 나에게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으로 대접하기를 원한다. 초대된 사람은 자신의 초대를 갈망하고 감사하게 받아드리면 기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너희가 계속해서 내 식탁으로 다가와 나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양식을 섭취하기를 원한다. 이 양식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축복한 양식이다. 너희에게 이런 양식이 필요하고 너희가 아무리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양식을 제공한다. 사랑이 너희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사랑이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 사랑이 너희를 이끌고 부르고 너희를 초대할 일꾼을 보낸다. 사랑 자신은 절대로 문을 닫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문을 열 것이다.

내 사자들이 내 선물이 분배되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로써 너희 혼이 좋은 선물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 식탁으로 나와야 하고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 음성에서 너희의 심장을 열어야 하고 나와 끊임없는 연결이 유지되도록 돌보아야 하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항상 내 임재를 갈망해야 한다. 내 임재는 내 음성을 통해 증명이 되고 내 은혜의 흐름의 유입을 통해 증명이 되고 너희의 혼을 강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내 말씀과 하늘에서 온 양식과 생수를 통해 증명이 된다.

내가 왜 너희에게 이를 말하겠느냐? 내가 왜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아드리도록 아주 긴급하게 촉구하겠느냐? 왜냐면 너희가 내 식탁으로 나오는 일이 너희에게 힘들어 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 때를 준비해서 너희의 혼이 강하게 되어야 하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 양식에 대한 갈망이 느끼고 단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복하기 위해 너희 혼이 많은 힘이 필요하고 너희 혼이 이 힘을 이전에 모았어야 한다.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풍성하게 제공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를 충분히 먹이고 마시게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런 힘을 단지 올바른 음식과 올바른 음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나 내 사랑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열어 놓은 근원 주위에 모이도록 부른다. 너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이런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식탁에 나오기 위해 저항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저항들을 기대해야만 한다. 왜냐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고 종말의 때에 내 대적자가 너희가 나를 떠나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해져야 하고 내 선물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 너희가 단지 내 선물을 갈망하고 나와 성찬을 나누는 일을 갈망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내 식탁이 있는 곳에 항상 참여해야 한다.

아멘